교 리 설 교

에덴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

임동선 지음

쿰란출판사

머리말

설교자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 있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특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고,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으며, 말씀 때문에 저의 일생이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하를 소유한 것보다도 더 기뻤습니다.

본 설교집에 포함된 말씀은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의 타락, 구원론, 성경관, 종말론, 내세론, 기독교인의 삶 등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들은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강론된 말씀이지만 기존의 일반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과 교리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우리 인간의 사고와 표현 능력의 제한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온건한 복음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체험하였고 깨달았던 진리들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많은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한 편의 설교가 문서화되어 나오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전할 때보다 문자화되었을 때 제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설교집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의 사역과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소망이 더욱 가득 차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말로 한 설교를 글로 받아 아름답게 정리해 주신 남진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면류관인 동양선교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집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정문섭 장로님, 쿰란출판사의 이형규 장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3월 10일

임 동 선 목사

차 례

하나님

시편 23편 1-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논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둘째는 도덕적 논증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보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령적 논증입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각각 목적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실체론적 논증입니다. 우리의 관념과 실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① 하나님(창 1:1), ② 여호와 하나님(창 2:4), ③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창 14:18-22), ④ 주 여호와(창 15:2, 8), ⑤ 영생하시는 하나님(창 21:33), ⑥ 전능하신 하나님(창 28:3), ⑦ 스스로 있는 자(출 3:14), ⑧ 만군의 하나님(시 80:7), ⑨ 크고 능하신 하나님(렘 32:18), ⑩ 천부(마 6:26), ⑪ 만왕의 왕(딤전 6:15), ⑫ 빛들의 아버지(약 1:17)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창 1:1, 27;시 19:1;느 9:6;롬 1:20).

일본에 내촌감삼이라는 사람이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에 관심

을 두고 연구하는 중에 '도대체 이 거대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번은 성경책을 구하여 창세기 1장 1절("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을 읽게 되었는데, 그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방 안을 뛰어다니며 춤을 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해답을 그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이지요. 눈을 들어 천지만물을 쳐다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에서부터 공중을 나는 새, 바다 속의 작은 고기들, 거대하고 무궁무진한 자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대자(출 3:14)이십니다.

세계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되십니다. 인간은 결코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니체는 철학의 절대성을 부르짖었지만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한때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등의 사람들이 절대자로 등장하여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였지만, 그들 모두 한결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불변성(시 102:27;단 6:26;히 13:8;약 1:17)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계획, 이해, 믿음, 소망, 사랑 등은 언제 변할지 모르며 자연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계획, 구원 등을 가지고 계셔서 변치 않는 약속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무한성(욥 37:23)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은 무한성과는 반대인 유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부부들을 예로 들면, 20-30살 정도의 젊은 부부들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60-70살 정도의 노부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들이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50살 정도의 중년 부부들은 열심히 싸웁니다. 왜냐하면 권태와 아울러 경제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과는 달리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이란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 지혜, 공의, 능력 등이 제한됨이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시 139:7-10;렘 23:24)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소련과 한국, 세계 어느 곳에든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대상 28:9;사 9:6)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앞으로 인간들의 갈 길과 세상 끝날 등 모든 것에 대해 아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무엇이든 못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영(靈)이십니다(요 4:24;골 1:15).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덟째로, 하나님은 인격의 소유자(계 3:19)입니다.

하나님은 지, 정, 의를 모두 갖추신 분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말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생한 것을 아셨고〔知〕,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고〔情〕,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意〕.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레 11:44;벧전 1:16;계 4:8 이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거룩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만든 제퍼슨 대통령은 흑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행하였고, 한국의 대통령들도 존경받기보다는 많은 실수와 오점들을 남겼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요,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초월적인 분이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시 119:137;롬 3:26)입니다.

하나님만이 편애 없이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관도, 세상의 군왕도, 운동 경기의 심판관도 잘못 심판할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만은 의로우셔서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게 판단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시 119:68)입니다.

하나님은 지고의 선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온전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신 32:4)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적인 진리로 모든 행위나 판단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진리관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대 세계는 포스트모던 사회로 일정한 가치관이나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 진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요 3:16;롬 5:8;요일 4:8-16)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도 아니요, 이기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신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온 우주보

다도 넓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출 34:6-7)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잘못하였을 경우에도 자비로 참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끝까지 참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신 32:21-22)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분노입니다.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하십니다.

여덟째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시 5:5,6)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 죄는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 들이지 않는 것도 그들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5-6절에도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시 89:14)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

나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의로운 세상입니다.

열째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신 32:34-41)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선을 심으면 선을 얻게 되어 있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벧전 1:17)입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모두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편견이나 치우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인종의 차이, 피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열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애 3:22-23)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위로해 주는 성품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요 4:23-24).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양심을 깨우쳐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경배인 것입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도시락을 펴려고 하니까 그만 도시락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가지고 간 것이 틀림없어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조금 후에 어느 키가 큰 학생이 그 도시락을 들고서 빈정되며 말하기를, "너희 집에선 밥 먹을 때 모두 그렇게 하고 먹니?" 하였습니다. 도시락을 빼앗긴 이 아이는 식구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단지 자기 집에 있는 개와 돼지는 밥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귀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이거나 의식적, 습관적, 거짓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진실과 겸손의 모습

으로 하나님을 향해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시 100:1).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섭리, 계획 등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며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갑이나 생일 잔치, 어버이날 등이 되면 특별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노래를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진실되고,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야 하고, 찬송은 기쁘게 불러야 합니다.

셋째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신 6:5, 10:12-13).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분들께 사랑을 표현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즉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 용돈, 그리고 형제간의 화목한 모습,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성품, 힘을 다하여 사랑의 표현을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히 11:6).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함을 통해 큰 힘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전능하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단편적입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 요새, 방패가 되시는 영원하시며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즉 겸손과 믿음의 모습을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빌 1:11;마 5:16).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뒷뜰 안에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복숭아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었습니다. 가을철이 되니까 복숭아도 아주 새빨갛고 크고, 감도 단감이 열렸고, 사과도 후지나 대구 사과처럼 큰 것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집주인이 나무를 보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열매, 의로운 열매, 착한 열매,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 등을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목욕함을 받은 몸이니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눕는 자리를 가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소년은 임금이 자기 손을 만졌다고 그 손은 씻지도 않고 장갑을 끼고는, 어머니가 만지려고 해도 임금이 만진 손이라며 만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만진

손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주님의 피로 목욕함을 받은 우리 몸은 얼마나 귀한 몸이겠습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사람들 중에 몸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양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몸을 타락시키고 병이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옛날에 동양의 교훈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도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에 조심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도 몸을 잘 관리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좀더 소중히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봉사의 생활을 잘하되, 남이 안하는 궂은 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중국 봉천에서 학교를 다닐 때 다섯 족속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만주 사람, 일본 사람, 몽고 사람. 그래서 '오족 협회' 라고도 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이었습니다. 변을 보면 즉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방한모를 쓰고 걸어가면 눈썹에도 다 고드름이 열렸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수수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하면 그것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막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누가 가서 좀 깨트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갑니다. 외출 한다거나 극장 간다면 먼저 나와서 줄을 서는데 그거 깨트리라니까 안 나옵니다. 그때 제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는데, 연장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지구는 넓은데 태극 깃발 꽂을 곳이 없다마는 대한 청년은 이렇게 살아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들기면 막 넘어지는데 가스가 콧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다 깨트리고 난 후 세면장에 가서 '흥' 하고 코를 풀었는데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귀가 나빠졌는지 모릅니다. 졸업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우수로 졸업한데에는 이런 봉사의 정신도 참작된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할 수만 있다면 봉사의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 학교 주위를 청소하곤 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는 않으나 미력하나마 봉사하고 싶은 생각에서였습니다. 학교 강당과 뜰, 계단과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당시 기숙사가 2층에서 5층까지 있었고 화장실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밤에 자다가 용변이 보고 싶을 때 내려오기는 싫고 일은 봐야 하겠고 해서, 따 먹고 둔 깡통에 용변을 보고는 밑으로 내버리는 학생이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뒤뜰에서 청소를 하다가 이 오줌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 성신세례, 오줌세례.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모든 세례들이 저에게는 의미

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니 학교에서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로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의로운 일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죽이고 감옥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서울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 참, 훌륭한 분이다. 젊은 사람으로 처자도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신성인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화여고에 다닐 때 만세 운동하다가 서대문에서 일경에 의해 체포되어 극심한 고문을 받고 칼로 몸이 세토막난 채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치고 유관순 열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살아 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신령한 열매를 맺고, 내 몸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의로운 일에 고난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로마서 8장 26-27절을 보면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이와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 1948년 신학교 졸업반에 있을 때 전라도 정읍 정거장 앞 제이장로교회에서 겨울에 집회를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자던 방에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방에서 하고 계시나보구나. 나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담요를 뒤집어쓰고 교회당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강사님의 방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문을 닫으면 또 이런 기도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해주어서 알았는데, 저는 그때의 상황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라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위태할 때 도와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남에서 유치장에 2번, 이북에서 1번 갇혔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6 · 25 때 낙동강을 건너야 했는데, 아무도 건널 수 없었던 이 큰 강을 성경을 가지고 건넜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현대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들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물을 다 건넜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전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영적인 담대함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전도를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인도할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쟁시에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 · 25 때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일 때였습니다. 구소련 대사가 회의에 참석차 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타고 가자고 대사가 이야기하니까 운전기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치지 못해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산 것입니다. 만약 그때 구소련 대사가 와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UN군을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는 공산당이 다 점령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안했더라면 우리 민족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또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6 · 25 때 인민군이 어떤 목사님의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인민군들이 배고픈 것 같아 있는 것 갖다 잔뜩 대접했더니, 다 먹고 고맙다고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대접을 안했으면 그 목사님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환난 때도 도우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급할 때는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첫째,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눈은 찌르려고 하면 얼른 감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하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시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둘째,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자녀와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 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눈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여 아이를 가슴에 안고 누웠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눈에 싸여 있는 어머니와 아이를 사람들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었는데 어린아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안았기에 아이는 어머니의 온기로 살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만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셋째,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예쁜 새끼 독수리를 낳아 놓고는 그를 위해서 토끼 같은 것을 하나 잡아다가 새끼에게 뜯어먹이고 또 먹이고 합니다. 황새 같은 동물을 보더라도 물고기 같은 것을 잡아서 새끼를 먹이는데,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먹이는지 모릅니다. 닭도 보면 평상시에는 순한데 누가 병아리를

건드리면 막 부리로 쪼으려고 합니다. 이 모두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물도 저렇게 제 새끼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듯,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선한 목자같이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것입니다. 독사, 전갈, 맹수, 강도 등의 위험을 만날 때 목동이 이런 것들을 물리치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정치가로서 정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림길 많은 세상에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이 한때는 남의 아내와 더불어 죄도 지었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그 남편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원수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경험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자꾸 읽으시면 큰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행복하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고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섯 종류의 사람 곧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 죄를 용서함받은 사람, 자족을 아는 사람, 인간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사람, 의미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하루밖에 가지 않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의 유산은 당대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정신적 유산은 3대를 갑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유산은 천대를 간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화폐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300년 동안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돈 벌러 갔다가 돈도 못 벌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신앙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식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물질적 유산보다, 정신적 유산보다 훨씬 값진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천국까지 보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16장 16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

'예수' 란 이름의 뜻은 '구원' 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란 말은 호칭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라는 말뜻은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부흥강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어느 할머니에게 "교회 다니시면 구원받으실 것입니다"라고

전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 달만 나오고 안 나오셔서 목사님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왜 한 달만 나오고 안 나오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목사도 거짓말하대. 목사님이 구 원 준다고 해서 한 달이나 교회에 나갔는데도 일 전도 안 주대"라고 했답니다. 당시 구 원이라는 돈은 적지않은 돈이었기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란 뜻으로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란 말은 히브리말로 '메시아' 로 이 뜻은 '기름을 부었다' 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 믿었건 믿은 지 오래되었건간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왕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딜 다닐 때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왔을 때 인쇄소에서 6년 반 동안 기본급만 받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일할 때 내 맘속에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사장은 미국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나다. 이 회사의 제사장은 나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왕권을 맡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일이 힘든 줄도 모르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라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들 중 자녀를 낳을 때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4남매를 낳았지만 이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聖)' 이란 '구별되다' 는 말이고, '경(經)' 이란 '자막대기'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별된 자막대기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언행 심사를 재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약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책이 한때는 전세계인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주었지만 지금은 그 위에 먼지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을 보면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수천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훌륭한 선생이야. 또 유명하신 분이지. 성자는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자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성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성자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한테도 무릎을 안 꿇지만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무릎을 꿇는다." 간디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힌두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는 존경 안하지만 그리스도는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후 4세기에 기독교를 핍박한 줄리안 황제가 마지막 운명할 때 최후 남긴 말은 "오! 나사렛 예수여, 그대는 이겼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증거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한 분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권위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니까 아주 점잖은 신사가 있어서 그 신사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댁의 남편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점잖으신데 집에서도 이렇게 점잖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하며 퍼렇게 멍든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부인 말씀이 어제 저녁에 남편이 주먹으로 자기를 때려서 이렇게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가정은 여자 분이 얌전해서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이것 좀 보라면서 보여 주는데 여자가 이빨로 물어서 이렇게 시퍼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생활해 보니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하고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이것을 말해 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 너무 자책해서 돈을 도로 갖다 주었는데 안 받으니까 돈을 던져버리고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의 양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 깊은 곳의 양심은 그의 마음에 가책을 줍니다. 겉으로는 큰소리치지만 양심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더 잘 압니다. 21세기에 무슨 마귀가 있을까 하지만 아직도 마귀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 들려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칼로 찌르고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며칠을 기도하니까 마귀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아주 맑습니다. 저는 마귀를 여러 번 봤습니다. 마귀는 요물입니다. 마귀는 다 압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대까지밖에 모릅니다. 족보를 뒤져봐야 알지만 마귀는 한 사람의 10대 20대까지 다 압니다. 마귀가 예수님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회개 안한 사람은 마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다간 망신당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마귀는 압니다. 물론 마귀가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 들춰냅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사람의 인격과는 다릅니다. 세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상처당하고 과부가 된 것도 아니요 병난 것도 아니요, 제일 아픈 것은 배신당한 것이라" 고 했습니다. 시베리아 차가운 바람이 아무리 내 볼을 찌르고 손가락을 쑤셔도 배신당한 것보다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서 예수님께 입맞추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입맞춤이 가증한 것임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입을 맞추어 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은 보통 사람들의 인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가룟 유다의 위선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부 되신 어머니를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살 집도 없이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삶을 볼 때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실 때 일곱 마디 하셨습니다. 이 일곱 마디 중에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완성, 구속의 완성, 사명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언치고는 멋진 유언입니다. 공자는 세상 떠날 적에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고, 석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데" 하고 세상 떠났고,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거 다 갚아달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서울 장춘단에 과부 한 분이 고기 팔고, 소 팔고, 소주도 팔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며느리, 손자 자식

들 다 모아 놓고선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하고 죽었답니다. 이처럼 유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생각하던 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 창을 찌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조롱하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과 같이 죽었고, 예수는 하나님과 같이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덟째,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신 채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악조건이 네 가지 있었습니다. 돌무덤에 장사, 십자가의 죽음, 무덤의 인봉, 로마 군인들의 파수, 이 네 가지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진리는 허위를, 사랑은 미움을,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숨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옥에 갇히고,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

한 사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뭔가가 자기에게 유리할 때 하는 것이지 매 맞아 죽는 데도 거짓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기에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홉째,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예언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

단이 잠시 이기는 것 같으나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잠시 동안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 종국적인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벌써 구약 창세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숨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오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잎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오래 갑니다. 무화과 잎으로는 수치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덮어 주실 것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즉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든 옷인데 바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다 재앙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상징적인 모형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 보면 염소 두 마리를 갖다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의 제단에다 올려 놓고 불을 지르고, 한 마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얹어 놓고 성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돌아다니다가 늑대나 사자한테 잡혀 먹습니다.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쫓겨 나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1장 8-9절에 보면 놋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런 백성은 약속의 땅에 가서 살 자격이 없다고 불뱀을 갖다 발을 물어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밖에도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을 하였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처녀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처녀에게서 나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신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신의 한 분입니다. 성령은 지, 정, 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은 아시고, 느끼시고, 결단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성령의 신이 잉태한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개미에게 이것을 들어보라고 하면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아주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개미나 굼벵이는 못 들지만 저는 사람이라서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신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44세 된 성도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적인 모습은 그분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셨고, 젖을 먹고 자라나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신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까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기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기도 하였고, 향유를 부으며 경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신성을 보여 주셨

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침대에 올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위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냐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1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할 것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고, 모든 군중들이 지금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며칠 후면 죽이라고 소리칠 것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고,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全知)하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을 향하여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있어 위험하니까 "바람아, 잔잔하라"고 명령하니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4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을까요? 인성만 있어 우리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없고 마귀로부터 지켜 주실 수도 없으시므로 신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신성만 있으시면 우리가 가까이할 수 없고 대화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제가 공군에 군목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평상시는 군복을 입다가 어느 날 평상복을 입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도 공군출신인데 사병이어서 목사님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군복을 벗고 이렇게 오시니 악수도 하고 가까이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복을 입었기에 친숙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으로만 오셨다면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구원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차 받아야지요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못 받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지옥의 아주 밑바닥에 갈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도 초신자 때에는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지옥도 아주 A급으로 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

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어떤 큰 감옥에 죄수가 1,000명 수감되어 있었는데 한 명 빼고는 999명이 하나같이 왕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재판장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한 명만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은 왕께 감사하고 지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정말 네가 잘못했고 너를 죽이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왕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죄를 깨달았으니 특별히 너를 내보내 줄 터이니 어머니께 효도하고 처자를 데리고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내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999명이 왕을 더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희들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그 큰 죄인이 함께 있으면 너희들까지 물들까봐 내보냈다고 돌려서 말했다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통회하였습니다. 다섯 남편을 가진 여인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도 최후의 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목욕탕은 때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처럼, 교회도 죄 지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자기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므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고, 좀 넉넉한 사람은 염소, 양, 소 등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 분이 흘린 피 덕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셨고,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국군과 UN군이 피를 흘렸고, 내 영을 위해서는 죄 없으신 주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분들께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임금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죽였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게 생각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하인에게 설명을 해보라니까, 이 하인이 이것을 말로는 설명을 못하니 임금에게 바닷가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바다에 갔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임금님을 보고 인사를 하다가 그만 깊은 바다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급한 임금은 옷도 안 벗고, 왕관도 안 벗고, 아들을 구하러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때 신하가 붙잡으면서 이것은 꾸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귀중한 분인데 임금님께서 목숨을 버리고 그 아들을 구하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주 슬플 때나

아주 기쁠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교의 글쓰기 반에서 학생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따귀를 한 대씩 때리면서 얼마나 아프냐고 물으니까, 어떤 아이는 "따끔합니다", 어떤 아이는 "작년에 아버지한테 맞은 것만큼 아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선생을 한 번 딱 때리더니, 그만큼 아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상을 탔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까?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딸만 일곱 명 있었는데, 심방을 갔다가 오다가 다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식이 없어 늘 자식을 갖고 싶어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차피 딸들을 키우시면 시집을 보내게 될 터이니 미리 한 명을 주시면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으니 따님 한 분만 주십시오"라고 강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잘 생각해보니, 언제든 내보낼 테니 괜찮다 싶기도 하고 장로님이 안돼 보이기도 해서 그러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고선 집에 와서 사모님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어려운 말을 꺼내야지, 무턱대고 말하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사모님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를 살피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을 다 재워놓고 자기 전이

가장 기분 좋은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꺼내니까 사모님이 화를 내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요즘 양식이 있어서 당신이 밥을 먹는 줄 알아요? 왜 하나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셋이나 넷 가져가라고 하지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래 알았어요. 내일 가서 물어봐서 또 주지요”라고 말하고선, 우선 한 명을 고르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첫째를 줄까 하니까 사모님이 “여보, 그 애는 첫째 아이인데 줄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를 말하니 둘째는 일을 제일 잘해서 안 되고, 셋째는 공부 잘해서 안 되고, 넷째는 예뻐서 힘들 때 위로받으니까 안 되고, 다섯째는 가정을 즐겁게 해주어서 안 되고, 여섯째는 바보인데 그거 주면 욕먹으니까 안 되고, 막내는 젖먹이인데 그 집에 누가 젖이 있어서 젖을 주냐고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아무리 밤을 새우며 살펴봐도 줄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딸 중의 하나를 양녀로 주는 것도 힘든데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 2,000년 동안 바로 깨달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성 프랜시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특성

피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서 피가 2/3 정도 없어지면 죽습니다. 차 사고나 다른 사고가 나서 출혈을 많이 했다면 그 사람과 맞는 피를 수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의 특색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아시아 사람이 백인과 결혼하면 백인을 닮은 아이를, 흑인과 결혼하면 흑인을 닮은 아이를, 다른 동양인과 결혼하면 그 동양 사람을 닮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이 속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의 성격은 일곱 가지입니다. 언약의 피, 흠 없는 피, 생명의 피, 영원한 피, 사죄의 피, 정결한 피, 화목의 피입니다. 이렇게 값진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 때문에 구원의 기초, 교제의 기초, 정결의 기초, 승리의 기초, 용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악한 세상에서, 악령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줍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부끄러움을 영화로 알고, 자나깨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급

급하던,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형식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이 나쁘다고 할 때는 이런 형식화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세분화해서 수백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선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악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하고, 불의하고,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편리를 추구하고, 향락 문화가 발달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절대 진리를 상실하고, 배금주의가 팽배해 있는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대한 물결과 같아서 휩쓸려 가기 쉽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15절에 보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영에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

이 사단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또는 경찰서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악령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이라고 해도, 술집에 가면 1차, 2차, 3차 영락없이 자리를 옮기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죄짓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간다 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면 사람이 속 좁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생활도 제약이 되고 많은 경험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에게 코를 꿰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술집에 가자 하면 술집에 가고, 노름하자 하면 노름을 합니다.

저의 스승 되신 김응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담배를 좋아하는데 잘 때도 담배, 먹을 때도 담배, 화장실 갈 때도 담배를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담배 생각하는 것의 십분의 일만 아버지를 생각해도 효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담배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거꾸러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자녀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마

귀에게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악한 세상에서, 악령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다, 믿고 행함으로 받는다 등. 또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받는다, 미래에 받는다 등의 견해가 있고, 횟수에 대해서도 한 번 받는다, 많이 받는다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

까? 그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 없이, 행함 없이,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어도 좋은 것은 아주 비쌉니다. 양주, 양담배, 마약, 보석반지 등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데 다 비쌉니다. 그러나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 거저 주셨습니다. 태양빛도 거저이고, 공기도 거저이고, 바다도 거저이고, 물도 거저이고, 산나물, 동물도 다 거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한 분이 '단지' 하나를 가져오셔서 보배 단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흙을 보여주시면서 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흙에다 심으면 엿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강냉이도 나오고, 감주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땅도 거저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구원도 이렇게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거저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야 합니다. 부자만 받아도 안 되고, 문벌 좋은 사람만 받아도 안 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일 년이면 천 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살 먹은 사람은 만 번, 30살 먹은 사람은 삼만 번, 60살 먹은 사람은 육만 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본전 뺀다고 살이 시뻘개지도록 때를 밀지만 목욕탕에서 나와 다시 밀면 또 때가 나옵니다. 인간에겐 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행위가 따라가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막내딸이 변호사로 있는데 이 아이가 여덟 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유학차 가족들보다 2년 먼저 미국에 왔었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 가기에 앞서 미국 가면 치료비가 비싸다고 하여서 엄마와 함께 아는 장로님이 하시는 치과에 갔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검사한 후 이도 빼고 치료도 하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네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는데 넌 아프지도 않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많이 아프지만 아빠 체면 생각해서 안 울어요"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었으니까 그에 맞게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에 그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현재에 받는 것입니까, 미래에 받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40일 금식기도하고, 400일 예배 나와야 하고, 방언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까, 여러 번 받는 것입니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만큼 받고 내년엔 이만큼 받고 하면 죽을 때쯤엔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가 열 달 되면 한꺼번에 나오지, 머리 나오고 조금 있다가 팔 나오고 또 있다가 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낳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에 내 아들, 딸이라고 올려 놨는데, 그 아들, 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은 언제까지나 내 자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

녀의 신분을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이 사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단번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으로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편의상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원받은 시점을 말한다면 과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므로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하기 때문에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 즉 죄의 문제는 우리가 고백하고 한 번 용서받은 것은 과거에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에 지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토마토 따 먹은 것, 전철표 속인 것, 슈퍼마켓에서 잔돈 더 받고 안 갖다 준 것 등, 이런 것을 다 모아 놓고 또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 보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하여 용서받은 것을, 다시 꺼내놓고 낙심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의 구원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육과 싸워 항상 승리의 생활을 해야 하

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생활의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은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병나고 사고 나고 죽기도 합니다. 이 육신은 나이가 먹으면서 늙게 되어 있고 노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엿장수에게 사이다병, 칼, 숫가락 깨진 것, 놋요강 깨진 것을 주면 엿하고 바꿔 줍니다. 그리고 엿장수는 그 받은 고물들을 주물 공장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큰 용광로에 넣으면 다 녹게 됩니다. 그러고선 다시 그릇을 만들고 무늬를 새겨넣으면 예쁜 그릇이 되어 가게에 진열됩니다. 며느리가 이 그릇 한 벌을 사다가 하나는 시아버지, 하나는 시어머니 진지로 올리고 "찬찬히 많이 드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릇에는 요강 깨진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 나왔기에 지린내가 안 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깨진 요강이었지만 오순절날 다락방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새사람

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즉 의롭다 칭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석에 서 있는 피고에게 판사가 당신은 무죄라고 선고하면 이 사람에게 무죄가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사죄의 은총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사, 즉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도 부자이고 만물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폭포수가 떨어지고 무지개가 보이니 사람들이 "와!" 하고 다 소리를 지르는데, 조그마한 동양 사람 하나가 "이게 누구 것인지 아냐?" 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

람들이 모른다고 하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폭포는 우리 아버지의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 목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때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한다고 했답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이것은 내 비행기다. 우리 아버지 비행기다'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돈내는 것은 비행기 조종사들, 안내원들 점심 사먹으라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화장실에 가서도 깨끗이 청소하고 나옵니다. 왜? 내 비행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 비벌리 힐도 내 것이다. 저 태평양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이고 하늘 나라도 내 기업입니다.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은 밥을 먹어야 하고 공기를 마셔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하고, 영적인 운동인 전도를 해야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섯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생활, 소금의 생활, 빛의 생활, 향기의 생활, 편지의 생활, 확대경의 생활!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좀 구별되게 생활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술, 담배가 구원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구별된 삶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사용됩니다. 음식에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맛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두움을 비추고 잘못된 것은 빨간불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근원이신 즉 발광체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향기 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딜 가나 좋은 향기를 내야 합니다. 이 향기는 소리가 없으면서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대경의 삶입니다. 확대경을 통해 보면 글자가 크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대경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있을 육체의 구원은 몸의 변화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5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의 구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추수할 때 꼭 알곡과 쭉정이를 가립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졸업할 때 선생님이 졸업 시험을 보게 해서 졸

업을 시키거나 유급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 때 공적을 따라서 상을 줍니다. 잘한 사람은 칭찬과 면류관을 주시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고, 이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가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풍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에베소서 1장 23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령의 본질

성령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인데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삼위 중의 하나의 인격입니다.

삼위일체를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들 역시 신학적으로 정확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태양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체가 있고, 뜨거운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물은 평상시는 액체이지만, 얼면 고체가 되고, 증발하면 기체가 됩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꽃에도 삼위일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꽃의 본체가 있고,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도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잘못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릇 이해하게 할 수도 있지만(사실, 조직신학자들이 이런 설명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생각하게 하는 기초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하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세 분이 동역해서 인류를 구한 것입니다. 구약 39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속죄하신 것이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에 있어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 말이 모자랍니다. 말이 완전한 것 같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꿀 한 숟갈 먹여놓고 그것이 얼마나 다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합니다. 가장 기쁜 것을 표현하라고 하면 그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너무 기쁠 때는 그냥 울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슬플 때도 할 말을 잊고 울어버립니다.

옛날에 유명한 교회 감독 한 분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유명한 과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 "저 나라 가서 다시 만나자"였답니다. 그전엔 저 나라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못 믿었는데 딸이 죽었을 땐 그 말이 나왔다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도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전에는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설교를 했는데 그의 딸이 죽고 나선 천국을 피부로 느끼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으면 참으로 오묘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천

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욥기 26장 13절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신"도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늘을 단장하신다는 것은 하늘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전지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KAL 비행기가 가다가 소련 미사일에 추락될 줄 알았다면 그거 탈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Challenge 13호에 여 선생 한 분이 탔었는데 그만 폭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미리 알았으면 누가 탔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전능자입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가 잉태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제가 1946년에 서울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 때 성령께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밝고 밝은 빛이 강단에 비췄는데 그것은 저한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 빛을 보는데 제 과거가 훤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회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또 제가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오대산에 가서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저 태양빛 하나가 지구 구석구석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빛 하나가 우주를 다 비춘다면, 성령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주에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신입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

첫째,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성령은 지성의 소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성령은 또한 감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성령님도 감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저는 1949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직전 1948년 겨울, 정읍에 있는 제이장로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김학철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인지 힘이 들었습니다. 찬송을 해도 힘들고, 설교를 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뒤에 앉아 있던 이 교회의 담임전도사님이 무엇인가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눈이 큰 사람이었는데 눈이 더 커져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전도사님이 강사 방으로 들어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일제시대 때 절간이었는데 대동청년단에서 그곳을 접수해서 고문도 많이 하고, 죽이고, 목매달아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까 보니까 예배당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시커먼 두 놈이 들어오더니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여자 둘에게 와서 그 입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가 갈리게 하여 매일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의 역사가 이 교회에 가득하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고 책상에 엎드렸는데 별안간 시커먼 놈이 제 목을 확 찌르는데 그때 머리칼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전 처음으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약을 올리면 털이 바늘 끝같이 서는 것처럼 섰습니다. 마귀 쫓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숨 막혀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나라! 아멘" 하고 배운 대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로도 없는 추운 교회에 들어가서 강대상에 바짝 붙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높고 높은 거룩하신 아버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큰일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였습니다. 처음에는 춥고 무섭더니 기도에 한참 불붙으니까 무서운 것을 몰랐습니다. "주여! 마귀가 크게 역사합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뒤집어져야겠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땀이 막 나면서 힘이 솟았습니다. 마치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부서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두려운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뒷방에서 주무시던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듣자니 방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고 상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밤늦게 기도하는데 나만 이렇게 잘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니까 제가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방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문

을 닫으면 또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고, 열면 아무도 없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성령께서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이튿날 제가 설교를 끝마치고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도 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재직과 세례교인들은 다 남아서 철야기도 합시다. 이 교회에 마귀가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까 김 장로라는 분이 먼저 죄를 회개하면서 울어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싸움하는 여자들이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이튿날 마지막 새벽기도회 때 그 여자들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했더니,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부엌에 가서 화해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감성이 있습니다.

셋째, 성령은 의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의지적으로 바울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바울을 그 지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고 복음이 크게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성령께서 음성이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도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습관과 못된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노름하는 것, 담배 피우는 것, 마약하는 것, 나쁜 데 돌아다니는 것, 미신 섬기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둘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계시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교회의 일곱 안수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과 북쪽 도성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픈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큰일을 행하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가라 하니 즉각 순종해서 갔습니다.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광야길로 가라고 하니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사람도 없고 힘든 길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다가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성경을 읽으며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앞으로 가까이 가라 해서 갔습니다. 가르쳐줘라 해서 가르쳐주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은 명령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들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음성으로, 어떤 때는 양심으로 책망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책망하듯이 그렇게 성령님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바르지 않을 때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때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이라면 피부는 하얗고, 머리는 노랗고, 키는 크고, 혀가 꼬부라지는 특색을 가졌다고 생각했습

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은 내가 정말 미국 시민인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시민이 맞습니다. 공항에 오고 갈 때마다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이 서는 줄과 시민권자가 서는 줄은 다릅니다. 제 느낌에 때때로 미국 시민인 것을 의심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살다보면 이것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것을 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상기시켜 주십니다.

고아원에 가면 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어린이들입니다. 어떤 때는 한국이 부끄럽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신발, 옷, 가전제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도 많이 수출합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 가면 한국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 입적을 하면 William, Smith 등 미국 이름이 붙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왔을 때, OMS라는 선교단체의 어느 선교사님 댁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는데 마크(Mark)라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 여자와 미국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아주 못되게 행동했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나가면 싸우고 돌아오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부인의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부인은 저에게 울면서, 우리 마크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후에 들

은 소식인데, 어머니의 기도와 주위 사람들의 기도로 마크가 대학을 나오고, 미국 여자와 결혼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얼마 전에 선교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마크가 미국 선교사의 양자가 되어 피부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그도 다른 자녀들처럼 그 선교사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면 거기에 참 감람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이니,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자와의 관계

성령과 신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은 신자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저는 23세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는 해방 후의 격동기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중국 만주 땅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한번은 나라를 살려 보겠다는 마음으로 북한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일성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온 스파이로 몰려 잡히게 되었습니다. 가둬놓고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공산당이 사람 죽이는 건 파리 죽이듯 하였습니다.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그날 밤 너무 억울하고, 아무리 찾아

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힘도 없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럼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저의 형님이 서울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 번 들렸습니다. 그 이튿날 총에다가 칼을 낀 경찰을 제가 탄 트럭에 태우기에 죽이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평양까지 데리고 가더니 숭실대학교 자리가 있는 공산당 본부 4층에 있는 김일성한테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배 중 한 분이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었는데 김일성과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일성에게 나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남쪽 스파이가 아니다. 남한에서도 공산당으로 몰려서 고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애국심이 열렬해서 그렇지, 스파이는 아니다"라고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사인을 해주어서 저는 3·8선을 넘어왔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실제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한 대로 신학교에 가기로 하고 서울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읍내에서 학자로 알려진 어른이었습니다. 아주 엄하신 분이었기에 저는 종아리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시고 도둑질도 안하고 하여튼 크게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공부는 안 가르치고 부

흥회를 먼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부흥회를 하고 회개시킨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에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내 생애에 처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946년 김응조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분은 신학자요, 교수요, 부흥사이셨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참 말 잘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저녁엔 '저거 몇 푼이나 받기에 저렇게 떠들면서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엔 '저거 목쉬지 않나?' 넷째 날엔 하시는 말씀이 꼭 나보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내 과거를 다 말해줬나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날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구멍이 뻥 뚫린 곳에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온갖 죄들이 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네 살 때 어머니가 우물 갈 때 안 데려간다고 뒹굴뒹굴한 것부터 모든 죄가 다 보였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인, 이런 죄인이 아직도 살아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나면서 콧물,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새벽기도 때 설교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시더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회개를 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넌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목사 못해" 하며 질이 나쁘다고 쫓아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자니 쫓겨날 것 같고, 안 하자니 지옥에 갈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책방에 가서 책을 훔친 놈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 많구먼' 하고 나

도 일어나서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시더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 마음의 기쁨, 평화, 담대함을 경험하면서 기독교가 윤리 종교일 뿐만이 아니라, 서양 종교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령을 뒤집어놓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보니 산천초목의 빛깔이 달라 보이고 저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힘주고 다니고 군화 신고 다니면서 거드름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악수하면서 인사할 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보면 '기생 오라비같이 뭐 저렇게 해' 하면서 저는 일부러 세게 악수하였습니다. 어떤 때 여자들과 악수를 하면 여자들이 "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지를 낀 데다가 악수를 세게 하니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인사하고 악수를 합니다. 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령님은 회개시키는 영이고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입니다. 안 믿을 때는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니지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마음속에 계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새벽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깊

이 잠이 듭니다.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탁 쳐서 보면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됨을 도장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나 아르헨티나에 가면 목장에 소들을 많이 키우는데 거기에 도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바울 자신이 자신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세례입니다. 물세례는 거듭남으로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물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세례를 통하여 마음속의 악독, 음란, 교만, 시기, 거짓 등을 다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세 종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와 성신세례와 오줌세례, 물세례는 거듭나서 받았고, 성신세례는 오대산에서 받았으며, 오줌세례는 신학교 다닐 때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 특별히 사찰집사가 없었기에 학생들이 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밤 2시든 3시든 기회가 되면 일어나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한번은 밖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게으른 학생이 깡통에다 오줌을 싸고 그것을 밑으로 쏟아 버려 오줌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화장실은 아래층에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성령세례를 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능력이 생기고 힘이 솟아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오대산에서 받은 성령세례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 춘양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은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춥습니다. 산이니까 나무가 많아 나무를 많이 땝니다. 어느 농장에서 나무를 너무 많이 때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까 그 집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오고, 소, 개, 고양이, 쥐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불이 떨어지면 동물적인 마음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를 받으면 기쁨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기쁨으로 봉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동부에 있는 한 이민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처음 믿는 청년들이 나에게 "장로님은 한 달에 얼마나 받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되었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일 전 한 푼 안 받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며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자기 일처럼 너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돈 받

고 일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의 7 · 19 잔치에 만오천 명이 출석하였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니까 그 만오천 명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부드럽게 굴러가듯, 성령을 받으면 기쁨으로 움직이고 부드럽게 교회가 돌아갑니다.

성령을 받은 결과

성령을 받은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선 성품이 변화됩니다.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아가페.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적이며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술집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필레아의 사랑이란 친구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라는 것, 말이 친구지 참 친구는 드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

상에 친구 하나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결혼까지 하여 한 몸, 한 뼈라고 하지만, 싸우고, 애를 두고도 도망가고 합니다. 부부라 하여도 참 친구가 드뭅니다. 술친구, 노름친구는 많지만 참 친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필레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사랑입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스톨게의 사랑은 윤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제지간, 부자지간, 형제지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도 완전한 사랑이 못 됩니다. 한국의 대재벌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형제지간도 돈이 있으면 싸우고 재판하고 야단입니다. 차라리 없느니만 못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불변하고, 편견이 없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부잣집 아들인 성 프랜시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좋은 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입혀주고 천민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훌륭한 의사요, 음악가요, 신학자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드린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희락, 즉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신앙에 기초한 기쁨입니다. 돈 벌었다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출세했다고 기쁜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 출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안 되었다면 지금도 육 여사와 함께 살아 있을 것입니다. 장관! 한국에선 사흘 장관이라고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색동저고리입니다. 색동저고리는 한 번 빨면 그만입니다. 반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화평케 됩니다. 이것은 훌륭한 통치자 안에서 누리는 화평입니다. 통치자가 위대하면 그 백성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니 우리의 삶은 평화가 넘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진정한 화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잘 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잘 참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공군에 들어가서 장교 훈련 받을 때 신병 훈련 두 달, 장교 훈련 두 달을 받았습니다. 신병 훈련 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단체기합을 받았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따귀를 때리라고도 하고 뛰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번사관이 화가 나서 자갈로 된 행길에다가 세 줄로 세워 놓고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관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 있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배를 깔고 엎드려 있으니까 화가 나서 막대기로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잘하라고 엄포를 놓고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번사관이 또 30분 있다가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번사관이 화가 나서 "너희들 이러면 밤새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 줄 중 가운데의 한복판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중에 설교할 때 누가 내 말을 듣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주번사관이 한 시간 반 만에 나오더니 그제서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거기 운동선수, 야구선구, 씨름선수도 많이 있었는데 저 하나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신앙의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에 대한 이런 소문이 나서 "역시 목사로구나!"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후부터 제가 설교하니까 먹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축농증이 걸려서 코도 많이 나오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의사인 이성구 장로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잘 대접하여 저의 병원비를 제해 주고 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뼈를 부수고 고름을 빼내며 수술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른 쪽을 수술하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저를 매려고 하자 의사가 "매지 마라. 지난번에 이 사람 잘 참더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약하고 아파 죽겠는데 잘못하다간 지난번 참은 게 헛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신앙의 힘이란 참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고 봉사하려는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시골에 사는 어느 어머니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떡과 엿, 그리고 옷을 만들어 용산

정거장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그만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떠나는 전차보고 "보따리, 보따리" 하지만 전차는 그냥 가지 않습니까? 웬 청년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주머니의 사정을 듣고는 쫓아가, 동대문 정거장까지 가서야 보따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나 고마워서 주소와 이름을 주면 나중에 찾아가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꼭 달라고 하니까 종이에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아들에게 엿을 먹인 후 종이를 펴서 내용을 보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경 구절이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청년과 같은 자비심이 생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자비심, 선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게는 형님 네 분이 계셨는데, 넷째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한번은 넷째형님과 함께 바닷가에 갔는데 그물에 갈매기가 걸렸습니다. 그물 주인이 그것을 잡아서 죽이든지 고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형님이 돈을 주고 그 갈매기를 사서 훌훌 날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형님이 성령을 받았기에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경상도 예천에서 사셨는데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습니다. 거리에 있는 집 없고 지저분한 사람을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재워주곤 했습니다. 자녀들은 장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철이 들면서

장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기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부드럽습니다.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쇠도 부러지지만, 가죽띠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땅도 딱딱하면 곡괭이를 맞습니다. 부드러운 땅에는 곡식을 심습니다. 부드러운 나무들은 화초로 키우지만 가시나무는 아궁이로 들어갑니다. 양이나 소는 집에서 먹이지만 독사는 누구나 다 때려잡습니다.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땅을 차지합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시저는 한때 총,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지금 손바닥만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땅을 정복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대나무가 왜 좋다고 합니까? 잎사귀가 변치 않아서도 좋지만, 매듭 매듭이 있어서 절제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운동도 절제하고, 힘도 절제하고, 명예도 절제하고, 부부생활도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절제를 못해서 망합니다.

둘째,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증인의 삶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본 것을 말하는 사람

입니다. 직접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랍어로 '증인' 이라는 말은 '순교자' 란 말인데,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공산당 중에서도 철저한 공산당은 마지막까지 "마르크스 만세", "김일성 만세" 하고 죽습니다. 열두 제자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한 것처럼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또 행동으로도 증거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그분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1년 후배 중에 이성우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성봉 목사님만 좇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응조 목사님이 "형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왜 꼭 이성봉 목사를 닮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절 닮았죠"라고 농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육신을 이깁니다. 미국 마이애미에는 유람선이 많습니다. 만 달러짜리 방도 있고 몇 천 달러짜리 방도 있는데 그곳에서 육신적인 타락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 하나가 대학 2년을 다니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으로 가서 재무부에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말하기를, 미국 아이들 대다수가 마약을 하고, 마약을 신발 속이나 이불 속에다가 감추고 월남 여자들 5달러, 10달러 주면서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다 일부러 불을 내서는 폐품이라며 다 갖다 팔아먹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짓 안했습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들과 같이 돈 벌었으면 부자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단자를 이기게 됩니다.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두 주일 못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이 와서 예수 믿느냐고 물어서 믿는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대면서 바로 믿으라고 충고하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답니다. 장로님은 말로 하면 못 당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자고 했답니다. "하나님, 생선이 썩으면 파리가 날리는 것처럼, 제가 두 주일 교회를 빠져서 내 심령이 썩어 냄새 나니까 오늘 파리 세 마리가 왔사온데, 이 파리 세 마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 주시옵소서." 약 15분 동안 기도하고 눈떴더니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오면 논쟁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보내든지 "우리 목사님께서 따라가면 가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마귀를 이깁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맹세를 해도, 성령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인간 창조와 타락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1-6).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내려오는 단군 설화는 환웅이 사람이 된 곰과 결혼을 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고 합니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알 속에서 나왔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곰과 혼인을 해서, 알 속에서, 또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 피가 사람에게 맞아야 할텐데 원숭이 피를 수혈하면 우리 몸이 거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구태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를 알려면 저를 보면 압니다. 저를 보면 제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 보면 비록 그분의 아버지는 보지 못했다고 해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고 "어쩜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사진판이군요" 해야지, "앞집 박 선생 닮았네!"라고 말하면 그런 실례가 없습니다. 그런 망언이 없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 레위기에서도 그랬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순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연애자들을 군대에 보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성서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전 세계 사람이 살게 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가 끊어질 것입니다. 에이즈라는 더러운 죄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창 2:24),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고 하셨습니다. 요새 선천적으로 아기를 못 낳는 분이 있고, 건강이 나빠 아기를 못 낳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자도 남자도 건강한데 결혼할 때 미리 아이를 안 낳기로 계약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서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딸을 아홉 낳고 다음으로 목사님을 낳았다고 합니다. 또 뉴욕에 장영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부모님도 계속 딸만 일곱을 낳다가 여덟 번째 낳은 분이 장영춘 목사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던 키 크고 잘생긴 허경삼 목사님도 딸을 여섯 명 낳고 일곱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국립음악원의 유명한 지휘자 정명훈 씨도 일곱 번째 아들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아홉 번째 아들이고,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며,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고, 영국의 유명한 웨슬리는 열다섯 번째 아들이며, 저도 여섯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섯만 낳았다면 저는 이 세상 구경을 못했을 뻔했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다면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부일처제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도 여자를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도 여자들을 많이 상대해서 병으로 일찍 죽었고, 농구선수 매직 존슨도 농구에서는 기록을 깼지만 그도 에이즈 때문에 코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일부일처의 교훈을 실생활에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사사건건 반역하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다섯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합니다. 둘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는 형제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넷째는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출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세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도끼리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인간의 타락

성경에 보면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였는데 남자는 의지적이라 자기 말을 호락호락 듣지 않을 것 같으니 약한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 유혹은 허영심이었습니다. 허영심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허영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허영심으로 해서 잘못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혼 상대는 건강하고, 신앙이 있고, 인간성이 좋고, 장래성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돈이 있나, 그 사람에게 가면 호강할 것인가 등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먹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긴다고 하니까 하와의 귀가 쫑긋

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다시 보니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했습니다.

사람에게 선입견은 참 중요합니다. 거짓말도 열 번 하면 참말로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집안이 대대로 애국자이고 훌륭하다고 소개하면 참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 그 사람 집안은 대대로 못된 짓만 해서 감옥에 가고 매국노의 집안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입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긴다고 하니까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여자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들보다 더 강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여자들이 대개 남자들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아비들은 적어도 과부들은 많다고 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한 입 깨물어 먹으니까 지혜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때 아담이 왔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냥 이제 오냐고 물을 텐데, 지혜가 생기니까 아담을 더욱 매력적으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주 아담을 반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단순해서 앞뒤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때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거냐고 물으면서 감췄던 선악과를 꺼내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부탁하니 마지못해 먹다가 그만 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목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영광의 옷이 날아가서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먼저 마귀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여자한테 먼저 온 이유는 여자가 허영심에 더 넘어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와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온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같이 있었다면 마귀가 못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한 여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온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 또는 남자가 멀리 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여자가 친정 갔다가 금방 와야지 1년 또는 더 오래 있다 오면 남편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가 돈 벌러 사우디아라비아나 유럽을 간 경우에도 신앙 있는 여자들은 아이들 키우고 저축하면서 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너 심심하지? 적적하지?' 라고 유혹하면서 '다방이나 가자, 극장 가자, 춤추러 가자' 해서 파산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것,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잘못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는 간호사여서 밤에 일하고 남편은 낮에 일해서 서로 바쁜데 한국에서 처제가 왔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일 갔다 오니까 남편과 자기 동생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아버지가 양딸, 심지어 자기 친딸도 짓밟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9살짜리 어린애를 성추행하고 도망갔다는 신문 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혼자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여자가 선악과나무에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 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호숫가에 빠트렸습니다. 호숫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무를 베었더라면 도끼를 빠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말에 "먹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자연히 검정 물이 묻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가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읊은 것도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와 더불어 의논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곁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약하고 허영심이 있고 혼자 있었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해서 결국 넘어진 것입니다.

선악과나무

선악과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덴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따 먹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만들어서 인간을 시험하여 타락시켰을까요? 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는 개인으로 말하면 양심이고, 국가로 말하면 법이고, 종교로 말하면 계율입니다. 법이나 계율이나 양심이나 다스리

는 주권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법을 세워놓고 그 법대로 다스리는 주권자가 없다면 법이 아닙니다. 종교에 계율이 있지만 이것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양심이 있으므로 양심을 다스리는 절대자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주권자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양심을 다스리는 분, 국가를 다스리는 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착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려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보십시오. 어떤 때엔 신호등이 귀찮죠? 차도 없는데 빨간 불 때문에 못 가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사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지키면 평화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중대한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졸업하는 그날까지 담배를 피우든가, 술을 마시든가, 거짓말하든가, 도둑질하든가 등 나쁜 짓을 하면 내일 졸업식이라도 당장 옷을 벗어야 합니다. 4년 동안 공부했더라도 그 전날 저녁에 실수하면 그동안 한 것이 다 소용없고 임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육군사관학교에서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오성장

군이 되고 대통령에 두 번씩이나 당선되었는데, 만약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중대한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와 같은 법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 먹을 수도 있고 따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남용해서 따먹으면 그 사람은 낙제하는 것이고 따 먹지 않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바른 판단을 하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이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라는 판단을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뭐가 옳고 나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할 수 있는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한국 다운타운 인쇄소에서 노동할 때 인쇄소 뒷골목 이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단을 파는 곳이었는데 불이 나니까 그 원단을 길거리에 다 던져 버리고 불을 껐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원단을 파는 주인과 종업원들이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보험에 들었으니까 지키지도 않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인쇄소에서 일하던 백인, 흑인, 멕시칸들이 그것을 자동차에 싣고 갔습니다. 저도 그때 이민 와서 가난했는데 비단 옷감을 보니까 탐이 났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우리 아내 옷도 해 입히고 우리 딸들 옷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거 입혀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느냐?' 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

으로 이렇게 싸우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겨서 기뻤습니다.

사람이 명성이 생기고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외국에서 고생하며 외로울 때 주인의 아내 되는 사람이 유혹하여 말만 잘 들으면 호강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유혹을 뿌리치며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많이 맞고 감옥에 2년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애굽의 총리대신까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 말을 들었다면 밥도 얻어 먹고 옷도 얻어 입고 용돈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애굽의 총리대신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서 안 짓는 게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에는 네 가지가 따라야 합니다. 책임, 질서, 절제, 존엄이 따라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었을 때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서 공부하는데, 어느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방에 독일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와 같이 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휴스턴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가서 점심을 먹고 난 뒤 그 목사님이 총 두 자루를 가져오더니 사냥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큰 나무로 올라가더니 내게 올라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노루를

잡으려면 쫓아가야지 거길 왜 올라가냐고 했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이따 저녁때가 되어서 노루가 물 먹으러 오면 잡을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올라가서 노루가 와서 물 먹으러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노루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노루를 잡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왜 그냥 가느냐고 물었더니, 노루에게 뿔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사냥할 때 암컷은 번식하라고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뿔이 있는 수컷만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짐승도 남자는 죽는 팔자인가 보다입니다. 그때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가 알래스카에 있어서 가끔씩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성도들이 낚시하는 곳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낚시터에 적혀 있는 글을 보면 작은 고기나 지느러미에 걸린 것은 잡지 말고 풀어주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 19 폭동 후에도 보면 세금 잘 낸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사람들은 보상금을 탈 길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책임과 질서가 있고 절제와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좋은 것은 겨울에도 독야청청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대나무를 가져다 놓는 이유

는 신랑 신부의 절개가 영원히 변치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리(원앙)를 주고받는 것은 오리는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포수의 총에 맞아 죽으면 다른 오리가 꼭 그 자리에 와서 울다가 죽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유에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차를 탈 수 있어도 타지 않는 자유가 참다운 자유입니다.

타락의 결과

첫째, 타락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쫓겨납니다. 어떤 회사에서 점원 하나를 고용했는데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집도 사주고, 보너스도 주고, 휴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원이 몰래 계속 도둑질을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덴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허락하고 선악과만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와 아담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여 추방당한 것입니다.

미국에도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법만 어기지 말고 살라고. 미국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미국인들이 처음 미국에 올 때 영주권 갖고 왔습니까? 남미를 거쳐서 여기 오신 분들 중 법을 어기지 않고 생활하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자리 잡고 잘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대학에 보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약을 수입하거나 갱에 있으면 쫓겨납니다. 의사는 얼굴만 봐도 병자인지 아닌지 안다고 합니다. 이민국 관

리는 벌써 걸어가는 것만 봐도 영주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알지만 헌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백인들이 못하는 일을 영주권 없는 사람이 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지금 여자들이 애기 낳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남자들도 땀 안 흘려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죄값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망, 죽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타락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악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면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잿물이나 비눗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도, 사우나에 들어가도, 온천에 들어가도 마음속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패하고 사악합니다. 로마서 3장 10-18절에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

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본래는 의의 종, 순종의 종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해서 타락했으니 마귀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산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서 최후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됩니다. 인생은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최후의 죽음 이렇게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미치는 영향

아담의 타락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란 아담의 후손 된 자에게 유전되어 오는 죄를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은 세상에 나서 죄를 짓기 전에 죄를 갖고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피가 어머니의 피 속에, 아버지의 피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피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피가 2/3가 빠지면 죽습니다. 수혈을 해야하되 같은 피, 깨끗한 피여야 그 사람이 소생합니다.

한국 사람 부부의 아이는 꼭 얼굴 색깔이 노랗습니다. 한국

여자와 미국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를 많이 닮게 됩니다. 한국 여자와 흑인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도 거의 아버지를 많이 닮습니다. 한국 여자가 흑인과 결혼한 경우 처음에는 아버지를 많이 닮지만 피부는 그렇게 까맣지 않은데 둘째, 셋째에 가서는 새까만 아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라는 것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말하기를, 이민 온 사람들이 이민 와서 많은 것을 바꾼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바꾼다는데, 두 가지 못 바꾸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상'과 '피'라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속이지 못합니다. 색깔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피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자범죄란 태어나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이나 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악을 행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손을 얹고 "착한 아이, 순종하는 아이, 깨끗한 아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라나면서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을 빨리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 읽고 나서 '이런 것이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입니까? 성자는 죄를 모르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어에서 '죄'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탑', 희랍어로는 '하마르티아' 라고 합니다. '하탑' 이란 말은 '탈선하다' 는 뜻입니다. 죄는 탈선한 것을 말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쏴서 죽였다면 탈선입니다. 경찰이 도둑질했다면 탈선입니다. 처녀가 결혼식도 안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탈선입니다. 기찻길이 좁더라도 기차가 선로에 올라서야지, 목적지에 빨리 가겠다고 운동장으로 간다면 이 기차는 조금도 못 갑니다. 신약, 구약의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지만 이 길로 올라서야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로 가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마르티아' 란 말은 '빗나가다' 란 뜻입니다. 활쏘는 사람이 활을 쐈는데 맞으면 옳은 것입니다. 빗나가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이라는 말에서 '성' 은 '거룩하다' 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구별되다' 입니다. '경' 이라는 말은 '캐논' 이라는 말로 '잣대' 입니다. 따라서 '성경' 은 '거룩한 자막대기' 를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추어서 맞으면 바른 신앙이고 틀리면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말

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

에스겔서 28장 17절, 이사야 14장 13-15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 가운데 제일 높은 천사장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루시퍼가 교만이 생겨 하나님을 밀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루시퍼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제자리가 있습니다. 목사 자리, 장로 자리, 안수집사 자리, 집사 자리, 성가대 자리, 주일학교 자리…… 모두 제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아이들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천사가 그 자리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데 교만해서 올라가다 거꾸로 떨어졌는데 네 번 떨어졌습니다. 보좌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무저갱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도 실수 한 번 하면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한 번 하면 자꾸 하게 되고, 자꾸 하면 나중엔 양심에 가책도 안 받습니다.

교만 때문에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여인의 태중으로 내려오셨고, 말구유로 내려오셨고, 무덤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겸손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계속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올라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죄의 정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젊은 남녀들이 자동차 안에서 죄짓고, 바닷가 가서 죄 짓고, 산에 가서 죄 짓고, 호텔에 가서 죄 짓는 이유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에 아이만 하나 있어도 죄를 못 짓고, 경찰이 있어도 죄를 못 짓는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규명한 계명입니다.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으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

령을 받으면 능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의 범주 속에는 불의가 포함됩니다. 교만, 시기, 흘기는 눈 등도 다 죄입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커다란 죄입니다.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사실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알고도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 추워서 옷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내보내는 것,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성질

죄의 성질을 알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첫째로, 죄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즉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도 보이고 들어올 때도 보이고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껌이 붙으면 휘발유로 닦으면 되고, 머리에 붙으면 자르면 되고, 따뜻한 물로 불려서 뗄 수 있지만, 죄는 마음속에 붙어서 곡괭이로 팔 수도 없고, 휘발유로도 닦을 수 없고, 비행기 타면 거기도 따라 타고, 잠수함 타면 거기도 함께 타고, 무덤 속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둘째로, 죄는 발육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장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셋째로, 죄는 방해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사명을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합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녁 밥상에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왜 이렇게 놀기만 하고 장난만 치냐?" 그러고 나서 아빠가 엄마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엄마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언성만 높여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죄가 있으면 더욱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 다음은 사명을 방해합니다. 삼손은 천하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장병 1,000명을 때려죽인 사람입니다. 여우도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엮어 밭에다 불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 하나 때문에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떠나간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유독 그 사람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사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파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이 축복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듯 죄는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고착성이 있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는 발육성이 있고, 기도와 사명과 축복을 빼앗아가며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안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보니 여러 나라와 여러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

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관찰하다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성경에 무식해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을 좀 알았다면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때 동생을 시기해서 때려죽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는 전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간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그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도 아무리 왕의 권력을 사용하여 죄를 은폐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신앙인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뭐라고 하나, 이런 것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뭐라고 하시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 합니다. 워낙 분위기가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합니다. 하다가 돈을 따면 신나서 더 하고, 잃으면 본전 생각이 나서 더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니까 나도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작은 죄는 괜찮겠지' 하고 죄를 짓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갑자기 꽝 하고 터진 것도 터진 것이지만 바늘만큼 터진 것도 터진 것입니다. 죄의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그램이라도 속이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열 마디 바른 말을 했고 한 마디를 거짓말했다면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죄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다섯째, 단 한 번만 죄를 짓고 다시는 안 짓겠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계속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그 이후에 자기들도 모르게 변명하는 죄를 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딱 한 번만"의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마음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못 감춥니다. 우선은 자기한테 못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전기랑 연결시켜 놓고 피가 뛰는 것을 보고 만약 정상적이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자신 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죄의 결과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죄를 많이 지으면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또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었는데 자꾸 죄를 지으면 마귀의 성품이 됩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천성을 낳고, 천성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또 죄를 계속 지으면 고귀한 지위에서 쫓겨납니다. 한국의 경우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러 그 공직에서 쫓겨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부통령이 세금을 떼어먹어서 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영국의 국방장관이 여자와의 스캔들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고귀한 지위에서 쫓겨납니다.

죄를 지으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민족이 망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밭을 깊게 파고 자갈을 다 없앤 후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바로 알고 받아들이려면 죄를 바로 알아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죄의 은총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과 이것이 가져오는 파괴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보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사람

마태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 3장 5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이다

공자는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고 하여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병자가 없으면 의사가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마 18:21).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죄를 세 번까지는 용서해주되 그 이상은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느냐고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2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는 사죄의 종교, 은총의 종교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성경에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입니다. 은총의 종교입니다.

유교나 불교는 인력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를 세우고 덕을 쌓고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고 좋은 나라에 간다는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양심에 더 괴로움을 받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아직 소말리아에는 굶주린 아이가 많이 있고, 여기서는 음식이 남아 썩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에는 끝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선을 완전히 행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용서받는 은총의 종교, 타력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분석해 보면 교만이 있고, 허영과 과장이 있고, 영웅심과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이 해탈과 열반, 무아지경에 들어가려고 자기 마음과 무던히 싸우지만 양심적인 사람은 참 힘들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수록 부족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자신이 천하에 더럽고도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어

서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옛날 여름철에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사람이 꽉 찼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경회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마친 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세요. 용서받으시고 구원받읍시다. 자, 기도합시다" 하니,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죄인이 남은 가르치고 자기는 못 가르치는 위선자요, 죄인입니다" 하고, 장로님은 "저는 장로이면서도 신자들에게 본이 못 된 죄인입니다" 하고, 젊은 청년은 "제가 집사라면서 변소간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창 밖에서 안 믿던 사람이 들여다보며 "순사들, 형사들 밥 먹고 뭐하나? 여기 죄인들이 수두룩한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나요? 그들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나만 양심적이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안 믿을 때도 여러 선배들이 저를 '임성' 이라고 호칭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에 참석해서 밝은 빛을 받아 죄가 드러났습니다. 영화처럼 정말 빛 앞에서 저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는 문둥이와 같은 인간이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빛 앞에서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빛 앞에서 죄인의 괴수임을 깨달았습니다. 빛 앞에 나가면 자기의 진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면장 집이라면 아주 어른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가면 면장 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장이면 어린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이라고 존경하고 우러러보지만 서울에서는 대학교 총장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작은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과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사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병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나 엉터리 의사는 적당히 진단하고 괜찮다고 하고 약만 발라주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양심적인 의사라면 "혹이 있습니다, 배를 째고 도려내야 삽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좋지 못한 목사는 그냥 "믿으십시오. 죄 짓고 다녀도 괜찮으니 그저 믿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참 목사는 "회개해야 거듭납니다.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참 사람이고, 담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슬그머니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회개 등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북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양조장 하는 주인이 교회에 나오니까 몇 번 사석에서 권했답니다. 쌀을 못 먹는 고아,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쌀을 삭여서 술을 만들어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가산이 파탄되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 직업은 믿는 사람이 하기에 좋지 않으므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서 강단에서 크게 "하나님은 양조장에서 가져다주는 돈은 안 받습니다. 성경에 불의한 돈은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양조장 주인이 성경을 들고 나가서는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니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갖다 바치면 됩니다. 많이만 바쳐주세요" 했습니다. 양조장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 목사님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양조장을 정리하고 예전에 나가던 교회로 다시 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어서 당첨금 백만 달러를 몽땅 교회로 가져오니까, 당회는 그 돈을 바친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돈을 받지 않는다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동산이며, 거룩한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개간을 해야 합니다. 쟁기로 갈고, 곡괭이로 풀뿌리, 나무뿌리, 자갈을 다 빼고 씨를 뿌려야 쑥쑥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

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4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바닥은 바리새인같이 닳고 닳은 마음입니다. 길바닥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없으니까 거기서 굴러다니다가 새에게 쪼아먹히고 맙니다. 돌밭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이것은 좋은 때는 예수를 믿고, 어려운 때는 안 믿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유익할 때는 교회에 나오다가 도둑을 맞았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핍박을 당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은 세상의 물질, 허영, 오락의 잡초가 잔뜩 있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자라는 것 같지만 잡초의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옥토는 율법이라는 구약의 괭이로 밭을 갈아헤치고, 성령의 불을 던져 다 불로 태우고, 복음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 율법이라는 괭이로 밭을 가냐면,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나쁜지 좋은지를 알기에 율법으로 마음밭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신약이 필요하지 왜 구약이 필요하냐고. 하지만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을 기를 때 영국 사람들은 회초리와 사과를 놓고 기른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리고 잘하면 사과를 준다고 합니다. 구약은 회초리입니다. 괭이입니다. 이것으로 마음밭을 먼저 갈아야 합니다.

회개의 필요성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책을 써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쓴 분도 있고 적게 쓴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권도 안 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한 권 이상의 책을 씁니다. 직접 내가 쓴 것은 아닐지라도 나에 관계되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책을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책을 쓸 것입니다. 우리의 호적은 고향에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더라도 그 서류가 이민국, FBI 등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북한에도 남한의 정보가 다 있습니다.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 사람은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살지만 사망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영벌을 받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시 7:1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길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시려고 활을 당겼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농부들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농부들은 곡식뿐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였지만 집주인이 그냥 가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추수할 때에 뽑아서 가라지를 모아 불에 사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지막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도 좋은 고기, 맛있는 고기는 그물에서 건지고, 나쁘고 좋지 못한 고기는 모두 던져버립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재수강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쓴 사람과 제멋대로 나쁜 짓 다 한 사람을 같이 천국에 보내거나 지옥에 보내면 저도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갈라놓으니까 주일 지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안 믿고, 죄를 물마시듯 마신 사람은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 ①

심판에는 양심 심판, 복음 심판, 시상식 심판, 만국민 심판,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지구촌의 아주 깊은 산골에 사는 사람, 아직 현대 문명을 접하지 못하고 전도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양심의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의 척도에 비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전도를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양심 심판을 받지 못합니다. 양심 심판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나 오신 후에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방에 두고 문을 잠그고 장보러 간다든지 극장에 간다든지 하면 아이들을 뺏어갑니다. 그 부모들은 감옥에 갑니다. 어떤 어머니가 장보러 갔다가 금방 오려고 아이를 차에 두고 갔다 오니 경찰이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어떤 집에 연년생으로 한 살 먹은 아이와 두 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두 살 먹은 아이가 한 살 먹은 아이의 눈을 쿡 찔러서 장님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때 두 살 먹은 아이는 감옥에 안 갑니다. 어머니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양심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감동이 되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

에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며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족속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금생과 내생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상식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한인도 백만 내지 백오십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훈장받은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은 군생활을 해서 대령 된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미국 공수부대 하사관으로 있던 사람은 이번에 집을 산답니다. 그는 백악관으로 가는 사람을 뽑는데 천 명 중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여러 개 탔습니다. 미국에서 공을 이룬 사람도 훈장을 탑니다. 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는 안 가지만 훈장은 못 탑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세상도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상식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국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 올라가고 산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갑니

다. 그리고 지상에는 7년 동안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국민 심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상에서 큰 환난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후 심판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무슨 일로든 죽은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어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는 최후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보좌 심판을 안 받습니다. 만국민 심판도 안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심판, 시상식 심판만 받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온다고 해도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갈 때 주사를 맞았습니다. 약을 가져가서 계속 먹고, 갔다 와서도 석 달 동안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백인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 곳에서 일본 대사가 모기에 물려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전염병이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종류 ②

심판에는 말의 심판, 마음의 심판,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의 심판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 12:36)라고 했습니다. 행동의 심판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

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계 2:23)고 했습니다. 마음의 심판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대하 6:30)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한 것으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축음기를 만들어서 들어본 다음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유성기판 속에 그의 말이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유성기판 속에 우리 각자가 한 말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테니 심판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 놀라 넘어져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좋은 고성능 라디오가 하나 있는데, 모스크바 말, 일본 말, 중국 말, 알미니안 말이 있습니다. 세계 각각의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틀면 각 나라 말이 다 나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눅 12:3)는 말씀이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말을 함부로 했을 텐데 성경을 안 후에는 말조심합니다. 성도들은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조심해야 합니다. 말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 절반을 숨긴 것을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의 마음을 모르고, 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이라도 아십니다.

행동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면 드러누워서 받는 것인지 일어나서 받는 것인지 압니다. 양치질을 하고 받는 것인지 아닌지도 다 압니다. 공간이 있고 벽이 있지만 우리 인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본부 지하실에 가면 사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북한에서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어느 속도, 어느 높이로, 몇 대가 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감실입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쿠바에 소련 미사일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고 북한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논둑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다 잡아냅니다. 개가 걸어가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지구를 비춰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행위를 모르시겠습니까?

목사가 이것을 안다면 나쁜 짓을 못하겠지요. 어떤 때는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요놈!" 하십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저도 나쁜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속에서, 차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고, 모텔로 가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독일에는 경찰이 거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어느 구역에서 속도 위반하면 며칠 후에 딱지가 와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레이더로 그 차를 다 잡

아내는 것입니다.

심판대의 광경

심판 장소의 광경은 유리바다와 같고, 일곱 등대가 있고, 불꽃 같은 눈이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깨끗하고 맑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파리 하나만 앉아도 금방 표가 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대의 광경은 깨끗하고 맑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리바다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일곱 등대는 완전 수입니다. 완전히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변호사가 있고 검사, 증인, 원고, 피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직고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애매하게 잡혀 30년 감옥살이하다 진범이 나타나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심판은 다 그렇습니다. 옛날 한국 자유당 시절 때, "큰 고기는 그물을 뛰어넘어가고 송사리만 잡힌다," "앞문으로 들어가고 뒷문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그냥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

나님의 심판은 유리바다의 일곱 등대가 있는 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을 하시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약해서 지은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바닷가에 가서 전복을 많이 따서 실컷 먹고 많이 따 가지고 가는데 헬리콥터가 빙빙 돌더니 자동차가 와서 붙잡았습니다. 거기서는 못 따게 하는 것입니다. 왜 법을 어겼느냐고 하니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 몰라서 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30년 정도 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벌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배고파서 먹었다고 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타고 급하게 심방 가다가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경찰에게 "마침 안개가 끼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어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모르고 한 것이라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약해서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전에 우리 집에 다섯 살 된 애가 사천에서 열두 서너 살 된 토박이 아이들과 딱지를 치는데, 큰아이들에게 마지막 하나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다 가버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울면서 들

어왔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이가 어려서 큰아이들하고 해서 잃는 것은 당연하다. 아버지가 또 만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열다섯 살인데 다섯 살 된 아이한테 자꾸 잃으면 그냥 안둡니다. 생존 경쟁 심한 이 땅에서 어린아이에게 지면 어떡합니까? 약해서 지은 죄는 용서받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딤전 1:13)였다고 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성령을 못 받아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용서받습니다.

회개를 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을 달라고 하고, 설사를 하면 설사약을 달라고 해야지, 모든 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하나 회개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만 가지고 오너라. 닭 한 마리나 보석반지나 돈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개도 안 먹고 돼지도 안 먹는 죄보따리를 가지고 오너라. 내가 영생과 바꾸어주겠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죄보따리가 뭐 그리 귀한 것이라고 내놓지 않겠습니까? 다 내어놓고 성령이 들어가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텐데 죄가 자꾸 쌓여 무거우면 저 높은 곳을 향해 어떻게 나아갑니까? 회개를 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참 회개를 하는 방법

첫째, 각성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호 4:14)고 했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 술, 담배, 노름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렇게 더러운 죄인,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도 못 가고, 기숙사에도 못 가고 밤새도록 떨었습니다. 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 6:6)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와 더불어 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충신까지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책망하니까 그는 애통해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눈물로 뜨고 요를 적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서울에서 여름에 부흥회를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라고 인사의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데, 30대의 한 부인이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얼마나 우는지, 제가 가서 "부인, 진

정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서울로 출가했는데 조그만 방에서 아기를 낳고 사는데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내기 불편하다고 자꾸 내려가시게 하라고 해서, 며칠 더 계시겠다는 어머니를 버스표를 사서 내려보냈는데 그 버스가 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예요. 저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사람 죽인 사람인데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습니다."

6 · 25 한국전쟁이 끝나고 서울 수복을 했을 당시,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하던 중 밤에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철야하다가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데굴데굴 구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날도 철야를 하는데 전부 회개를 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증인을 세우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며 새벽기도를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젊은 분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절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뭘 위해 기도할지를 물으니 "저는 6 · 25 때 한강을 못 건너서 여기 머물면서 앞집의 장작도 좀 가지고 와서 때고, 뒷집의 고추장도 좀 퍼다 먹었어요. 그것도 애기 아빠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하기에 그것이 무슨 회개냐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느냐고 했을 때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따 먹었다고 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따먹었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핑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했지만 버림받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했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애통해야 합니다.

셋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막 1:5)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했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처럼 매번 와서 신부에게 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겠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또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넷째, 보상이 필요합니다.

갚아야 합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겔 33:15),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눅 19:8)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한 것을 본인에게 못 주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빚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놓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맺힌 것이 있다면 풀고, 편지나 전화나 찾아가든지 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강릉에 형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해방 직후에 가

서 부흥집회를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둘러앉아 철야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형수님이 그 학생들이 흘린 눈물, 콧물 자리는 아무리 닦아도 그대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중에서 얼마 안 있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시험을 앞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부흥회 참석 후 그 다음날 학교는 안 가고, 고무신 훔친 것, 책 훔친 것 등을 전부 다 돌려줬답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가 되었답니다. 갚을 것은 갚아야 합니다. 가시에 찔렸을 때 아프다고만 하면 뭐합니까? 빼내야지요.

사죄의 은총

성경에 보면 칭의, 후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즉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7)고 했습니다.

각성, 애통, 고백, 보상을 하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죄를 사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어떤 집에 외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 큰 거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거위를 아주 아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이 아이가 고무로 만든 새총을 가지고 새를 잡으려다가 하필 그 거위를 정통으로 맞혔습니다. 아이는 얼른 흙을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웬만하면 죄를 숨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보니 그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네 일은 네가 하라"고 했더니, 이 머슴이 "그러면 내가 이른다"고 하기에, "뭘 이르냐"고 물으니, "너 새총으로 거위를 죽였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머슴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그 다음날 또 도와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도 자꾸 일을 해달라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점점 말라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꿇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새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거위를 죽였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덥석 끌어안으면서 "나는 네가 죽인 것을 네 얼굴을 보고 알았다. 네 음성 듣고 알았다.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와서 자백하길 기다리고 기다렸다. 네가 이제 정직하게 말했으니 다 없던 일로 하자.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정직한 것이 거위 열 마리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또 그 머슴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들은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머슴이 일러바친다고 해도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면 저는 미쁘사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분, 성령 받은 분도 있겠지만, 혹 아직까지 죄가 뭔지 잘 모르고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내놓고 용서받고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새사람

새사람이 된 것을 중생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고 했습니다. 중생은 무슨 뜻입니까? 새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새사람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전혀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금, 성냥, 비누 같은 일용품도 장사꾼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다른 것과 바꾸어 사서 생활하곤 했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나무로 바가지도 만들고, 방망이 같은 것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노점에 번쩍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이 뭐냐고 물으니 얼굴 보는 거라고 해서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누구냐고 했더니 당신이라고 하는데, 눈썹은 까맣

고 코가 중앙에 있고 아무튼 너무 신기해서 그 거울을 하나 샀습니다.

가다 보면서 웃고, 가다 보면서 웃었습니다. 집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보면 좋을 텐데,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만 보고 싶어 광 뒤주 속에 숨겨놓고 나갈 때 보고 기뻐하고 들어올 때 보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보니 남편이 장에 갔다 오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다가도 웃고 특히 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더 웃습니다. 그래서 구멍으로 가만히 보니 남편이 뭔가를 쳐다보고는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몰래 그 거울을 훔쳐 보았습니가.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 웬 젊은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 남편이 광에 젊은 여자를 붙잡아놓고 좋아해요"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가서 보더니 놀라긴 하였지만 "아가, 젊은 여자는 아니고 늙은 여자가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살 적에는 어디서 왔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십자가를 촛대 삼고 피를 기름 삼아 불을 붙일 때 십자가로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자기의 진상을 찾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 앞에서만 다시 찾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 몇 십년 세월이 흐르고 흐르니 먼지가 앉아 그림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닦으니까 광채가 납

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몇 십년 살다보면 죄 짓고 때가 묻어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집니다. 보혈로 다 닦아낼 때 하나님의 참 형상이 드러납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찾습니다. 가짜 사람이 있고 진짜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괜찮습니다. 황금과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리로 만든 것, 도금한 것은 벗겨지고 변합니다. 가짜가 그렇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몸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 라는 가치는 얼굴, 손, 흙으로 돌아갈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 없어집니다. '나' 는 육체, 물질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육체를 해부해 보면 9가지 정도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돈으로 따져야 2달러밖에 안 되는 가치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입니다. 이 육체에 영혼이 나가면 죽은 것이고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때 종종 꿈을 꿉니다. 꿈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만이라면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이 속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돌이 되면 실, 떡, 돈 등을 놓고 집어보라고 하고 '짝짜꿍', '도리도리' 를 시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물다섯 살 정도일 때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권사님들이 제 옆에 와서 "전도사님, 결혼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육신은 변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

을 찾아야 합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실존 말입니다. 요즘 철학자들은 "병든 문명 속에서, 대중과 기계 속에서, 분란한 일상생활 속에서, 방관주의와 향락주의 속에서 본래적인 자기 실존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비본래적인 자기, 비인간화, 인간부재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실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공자도 "네 몸을 닦아라", 석가는 "네가 해탈하라", 예수님도 "새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 가운데 참 사람만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칸트는 "동물적 인간, 인간적 인간, 인격적 인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베이컨은 "거미와 같은 인간, 개미와 같은 인간, 벌과 같은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벌과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연인, 의무인, 은혜인"이 있다고 하는데 은혜인이 되어야 합니다. 삼차원의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란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계란이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꼬꼬댁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지만, 어미닭이 품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되어 나오면, 듣고 보고 뛰고 나는 것입니다. 암탉은 알을 낳고 수탉은 아침을 알리는 꼬꼬댁 소리를 내듯 껍데기를 벗으면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도 원죄의 껍데기, 자범죄의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합니다. 매미는 굼벵이가 변해서 되는 것입니다. 굼벵이도 껍데기를 벗으면 매미가 되어 우리

도 못 가보는 평양을 비자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껍데기를 벗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즉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1-23;참고성구 갈 5:19-21;롬 1:29-31).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 23:27)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모양은 번듯하지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은 겉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종대왕 능 같은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속엔 썩은 것이 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 속도 더럽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렘 17:9). 누군가 인간의 마음은 벗어놓은 버선짝이라고 했습니다. 벗어놓은 버선짝에서는 구린내가 납니다.

미국의 시인 샘 보비(Sam Bobby)는 인간의 마음은 동물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뱀, 돼지, 늑대, 자라, 호랑이, 사자 등. 인간의 마음은 동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처럼 물고, 돼지처럼 욕심내고, 뱀처럼 감고, 자라처럼 좋을 때는 나오고 나쁠 때는 쏙 들어가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한겨울에 자고 일어나 보니 온 동네에 흰 눈이

내려 쌓였고 마당에 쌓인 눈에 개 발자국, 닭 발자국,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서, 즉석에서 개가 걸어간 발자국은 송이송이 핀 함박꽃 같다고 하고, 닭 발자국은 절제와 정결을 상징하는 배 잎사귀 모양으로 아름답게 피었다고 하고, 사람의 발자국은 천상소도둑놈 발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무엇이 고여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면 혁명과 자아혁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새사람이 되는 방법

첫째, 말씀으로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시 19:7),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엡 5:26),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요 15:3)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에는 영양력, 부흥력, 인도력, 폭발력, 해부력, 구원력, 현정력, 상상력,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14장을 통해 회개를 해서 새사람이 되었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보고 새사람이 되었고, 선다 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스펄전은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간다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해방 후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키가 커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키가 큽니다. 잘 먹고 자유롭게 사니까 그렇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서 욕심을 많이 부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무뚝뚝하지만 한 번 사귀면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느물느물하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파닥파닥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닭고기를 많이 먹어서 닭이 꼭꼭꼭 하는 것처럼 상냥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먹는 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어떤 할머니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와서 졸지만 말고 앉아 있으면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듯이 10년, 20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마귀 형상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기도로 새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전 4:5),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출 34:30)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문의호 목사님이 한번은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

업하고 평양에 전도사로 가서 사역하는데, 부흥회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동창생 전도사를 모셔와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신자들이 나가면서 우리 문 전도사보다 설교 잘한다고 하고, 그 다음날도 우리 문 전도사보다 은혜스럽다고 하니까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더랍니다. 그 다음날도 문 전도사보다 잘한다고 하니 질투, 시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가인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 마귀의 마음을 없애주소서."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새사람이 됩니다. 나쁜 생각이 있을 때 주기도문을 자꾸 외워보십시오.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피로 새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독사의 피가 들어가 독사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까치독사를 보십시오. 알록달록 무지개색 오색이 영롱합니다. 아침 이슬에 맞아 번쩍번쩍하지만 만져보면 걸쭉걸쭉합니다. 멀리서 보면 미끌미끌하고 번쩍번쩍합니다.

뱀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겸손한 듯하지만 건드리면 얼마나 독기가 있습니까? 결혼 서약 때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목사한테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가보면 가방 싸놓고 말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를 때렸어요. 이젠 같이 안 살아요. 이혼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남자를 야단칩니다. "이것 보세요, 형제는 누이동생도 없습니까? 태평양 건너와서 형제만 바라보고 사는데 때리다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나무라세요? 여기 이빨로 물어뜯은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서로 독기가 있습니다.

뱀은 땅에서도 잘 살고 물에서도 잘 삽니다. 요새 신자들도 예배드리러 와서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고 술집 가서는 "십이 열차 오동동"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뱀은 또 통째로 삼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개는 긁어먹지만 뱀은 잔인해서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뱀은 혓바닥이 두 개입니다.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하고 뒤에서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독사의 피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독사의 피를 빼서 만든 주사를 맞아야 삽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민 21:9)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요 3:14-15)고 했습니다. 놋뱀은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을 때 독사의 마

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딸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과거에 다섯 남편 가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가 새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는 다릅니다.

넷째, 성령으로 새사람이 됩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딸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믿음으로 새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풍습에 누구든지 밤에 과부에게 들어가서 그 과부를 포대에 넣어 데리고 오면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법으로 제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양반집에 과부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넛마을에서 양조장하는 어떤 나쁜 사람이 사람을 시켜 그 여자를 푸대치기(포대에 넣어 훔쳐오는 것)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자기 아들이라고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이 아들이 커서 과거를 보러 가는데, 하룻길을 걸어 묵을 집을 찾아보니 그 집에 할머니 과부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양반집이고, 며느리가 아기를 배었을 때 아들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는데 누가 며느리를 푸대치기해 데려갔습니다. 오늘이 내 아들의 제삿날인데 당신 얼굴과 내 아들 얼굴이 너무 비슷합니다." 하는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밤에

제사를 같이 지낸 후 길을 떠나는데 그 할머니가 달밤에 따라나 왔습니다. 달밤에 계수나무를 막대기로 세 번 때리더랍니다. "왜 먼저 갔느냐? 왜 그렇게 며느리를 잃어버렸느냐? 왜 오늘은 얼굴이 같은 사람이 왔느냐?" 하더랍니다.

아들은 과거에서 그동안 공부한 대로의 제목으로 쓰지 않고 "월야계수삼타"(月夜桂樹三打, 달밤에 계수나무를 세 번 때리더라)라는 제목으로, 법으로 푸대치기를 제재하지 않는 내용을 써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이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장원급제한 아들을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동네의 큰 집에 과부 할머니가 사는데 그 양반집의 아들이다. 너는 상놈의 아들이 아니라 양반집 아들이다. 나는 몸을 더럽혔으니 갈 수 없지만 너는 가라" 하고는 어머니는 칼을 빼서 자결해버렸습니다. 그후 아들은 어머니 시체를 들고 "나는 상놈의 자식이 아니라 양반집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잃었던 양들이 목자에게 돌아온 것처럼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사람의 삶의 방식

첫째,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요일 3:9).

요셉은 애굽에서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새사람이 되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죄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7)라고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때 아들 둘이 좌익계 학생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아 그를 군법회의로 넘겨 사형시키려고 할 때 손 목사님이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그 사람을 죽인다고 제 아들이 살아오겠습니까?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대신 그를 양자로 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미엔 신부는 하와이 몰로카이라는 문둥이가 사는 섬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니까 저런 짓 한다고 그곳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

부님은 칼로 살을 째서 문둥이 피를 섞어 그들과 같은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눈썹이 없어지고 온몸이 성치 않은 자기 몸을 보고 기뻐하며, 문둥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환자를 돌보다가 죽었습니다. 하와이 시청에 가면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새사람이 되고 나서는 거지랑 옷을 바꿔 입고 일생 동안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것처럼 사랑이 있습니다.

셋째, 세상을 이깁니다.

어느 날 장마로 인해 한국의 강원도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집, 나무들이 떠내려가는데 송사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물질과 도덕의 타락, 향락, 마약, 이혼이 성행하고 죄악의 홍수가 멸망으로 돌아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역행해서 올라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수는 천둥같이 떨어집니다. 무지개가 서고 폭포수가 천둥같이 떨어지는데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연어가 팔팔 뛰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십자가의 피, 믿음, 성령으로 새사람이 되어 죄를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17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종이로 되어 있고 인쇄 방법도 활자도 일반 책들과 같지만 다른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해서 사람들이 쓰는 종이과 펜을 가지고 성경을 쓰셨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 은 희랍어로

'하기오스' 인데 '구별하다' 는 말입니다. '경' 은 '캐논' 으로 '척도와 푯대'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 책과 구별된 책이며 우리의 삶과 신앙에 척도가 되며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마음을 재보고, 말과 행동을 재보고, 사업체를 재보아 잘 맞으면 바른 신앙생활이고, 성경으로 재보아 모자라거나 넘치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삶의 하나하나를 측정하는 자, 막대, 또는 푯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

첫째, 신관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등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제일원리"라고 말하고, 힌두교에서는 범신론적으로 말하고, 모슬렘에서는 알라 신으로, 일본에서는 팔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유일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보편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편 타당성이라는 말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껴지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에는 옛날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고, 현대인이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어른이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고, 여자가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또 전공별로 음악하는 사람, 체육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학자나 공부를 많이 안한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주일학교 아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읽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동서고금, 인종, 유무식,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읽는 데 어렵지도 않고, 쉬우면서도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는 보편성이 있는 책입니다.

태양도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태양빛 속에 삽니다. 공기, 물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쌀밥도 몇천년 전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모두가 항상 먹는 음식입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다른 쌀밥에 다른 공기, 다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책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마

르크스나 엥겔스와 같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 날개돋치듯 팔렸지만 지금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옳다고 하던 것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남녀칠세부동석' 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오늘날 그것이 타당한 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성경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인도는 아주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분명한 선이 있어 빈부 차이가 뚜렷합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는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구분됩니다.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양반이고, 종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노인,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남자만 숫자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말라고 하시며 어린아이를 손수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셋째, 성경은 중심 사상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은 26명의 사람이 1,500년에 걸쳐서 쓴 책이고, 신약은 8명의 사람이 100년 동안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즉 66권의 책을 34명이 1,600년에 걸쳐 쓴 것을 엮어놓은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어부, 의사, 목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 날 한 곳에 모여 한 분이 얘기한 것을 받아쓴 것같이 중심 사상이 일목요연하게 메

시아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렇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초림의 예수, 즉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또한 구약이 갈보리 언덕에 나타날 예수님을 내다보고 쓴 것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돌아보고 쓴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입니다. 핵심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많습니다. 가죽 옷(창 3:21), 장대 꼭대기의 놋뱀, 아사셀 양, 반석, 새벽별 등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태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철학도 있고, 윤리, 사랑도 있고, 남녀의 교제도 있고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행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중심 사상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넷째, 성경은 예언 성취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말은 그대로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예언, 가정에 대한 예언, 집안에 대한 예언, 민족과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다 맞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죄가 많습니다. 두 살 된 영국 아이를 십대들이 데려다가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3-14세 아이들을 산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범하고, 남편

이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발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단 하나의 예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국에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있는데 일제 때 경상도 풍기 땅이 피난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북쪽의 부자들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경상도 풍기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6 · 25 한국전쟁 때 북한군들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 오니 이 사람들이 여기도 피난처가 아닌 것 같아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에 있다가 한라산 빨치산에게 죽었습니다. 맞지 않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 높은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뱀, 호랑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탱크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뱀, 늑대, 사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탱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품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 평안의 그림을 그려 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소나기가 멈추고 햇빛이 비취는 푸른 초장에서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을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고 아이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젖을 빠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하고 나올 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가 손잡고 나갈 때 '주여, 가다가 헤어지지 말게 하시고 천성문 갈 때까지 끝까지 저렇게 손잡고 가게 해주세요' 라

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장 같은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바닷물은 철썩철썩 파도를 치는데 깎아지른 절벽 꼭대기에 뚫린 구멍 하나에 독수리 어미가 얼굴을 약간 내민 새끼 두 마리를 품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중에 가장 우수작으로 뽑힌 것이 바로 마지막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큰 절벽이 있더라도 어미 독수리 밑에 있는 새끼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안전합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품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하려는 부부가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장교의 신분이었는데, 대서양 가운데로 지나는 중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 키에 담겨 있는 곡식같이 배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잠만 쿨쿨 자고 있어, 신부가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기도도 안하고 나를 붙잡아주지도 않고 잠만 자요?” 그러자 느닷없이 신랑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 신부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신부는 깔깔 웃었습니다. 남편이 웃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신부는 곧 “칼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데 무엇이 무서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조바심내고 근심해도 안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총알이 사람을 피해야지 사람이 총알을 피하면 백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코가 깨져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경은 영원성과 발전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쇄되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미국을 여행해 보면 모든 호텔이나 모텔에는 꼭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1,700-1,800개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문학전집, 노벨상 수상집, 유명한 책들도 50개국 방언으로 번역된 것이 드물다고 합니다. 방언은 지방의 속어, 사투리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나라말로 읽어 알게끔 번역한 것이 방언입니다.

저희 교회의 홍성호 선교사님은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문화를 배워가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경상도와 강원도 말이 다릅니다. 북한 말도 새로 나온 것이 많아서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말이 많습니다. 제주도만 가도 우리가 모르는 말이 많습니다. "조개 조개 옵소베"라는 말 뜻은, "빨리 빨리 오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 사투리로 번역한 것이 1,700여개 방언입니다. 인도에는 800개의 방언이 있습니다. 한국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중국은 산동과 광동 말이 다릅니다. 이 많은 방언으로 번역되었으니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핍박이 많았

습니다. 성경을 뺏고, 찢고, 불태우고, 믿는 사람을 잡아죽였지만, 불덩이를 끄면 불똥이 더 튀는 것처럼 번졌습니다.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무신론자가 앞으로 50년이면 성경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 50년 후에 그 집이 성경을 번역하는 성서공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경은 위대한 감화력을 줍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감화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헌신하여 성자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디 그런 책이 있습니까? 이광수의 「유정」, 「무정」, 「무명씨전」, 「흙」 등 읽어도 재미있는 것뿐이지, 회개하고 거듭나고 헌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큰 감화를 받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성 프란시스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문헌으로서의 성경

성경에는 역사, 시문, 예언, 철학, 신학, 웅변, 기도, 풍자, 음악, 연극, 비극, 율법, 설교, 노래, 경고, 남녀 사랑, 가정생활, 봉사, 영원한 나라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시초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통소를 만들어서 부른 것이 시초입니다. 연극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연극이 나와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가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학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법률도 모세오경에서 발달된 것입니다. 법률이 로마에서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값진 문헌도 됩니다.

성경의 비유

첫째, 성경은 칼입니다.

칼은 어떤 것의 모양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과 혼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좋지 못한 것을 떼어낸다는 것입니다. 암도 수술해서 도려내지 않습니까? 뿌리를 완전히 뽑은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재발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리한 칼입니다. 골수를 쪼개어 죄를 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뼛속에 있는 죄까지 잘라냅니다.

둘째, 성경은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빛은 때때로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빛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셋째, 성경은 씨입니다.

씨가 좋은지 나쁜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람을 존중하고 민주주

의가 꽃을 피우며 평화가 있습니다. 짐승도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좋아야 합니다. 불교의 씨를 심은 나라는 태국입니다. 힌두교의 씨를 심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마호메트의 씨를 심은 나라는 아랍 국가입니다. 마르크스의 씨를 심은 나라는 쿠바와 북한입니다. 공자의 씨를 심은 나라는 대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린 나라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개명하고 첩을 두지 않으며, 술과 담배를 끊고, 노름을 하지 않으며, 자녀 교육에 힘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술 먹고 나쁜 짓하고 자식들 안 돌보고 엉망입니다. 복음은 귀한 씨입니다.

넷째, 성경은 방망이입니다.

죄악을 부숩니다. 살림을 깨뜨리지 말고 죄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옛날 공군에 염 대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제 때 일본군에 가 있던 사람인데 얼마나 입이 험하고 욕을 잘하는지, 공군에서 참모총장 이름은 모르지만 염 대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월급 한번 갖다주지 않아 부인이 웁니다. “여보, 양식도 없고 김치도 없고 겨울이 되어도 땔감이 없는데 매일 술만 먹고 빈 봉투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는 “땔감이 없어?” 하며 문을 부수면서 “이것 가지고 때”라고 하는 것

입니다. 부인이 기가 막혀 더 우니까 "모자라?" 하면서 밥상을 부수어서 때라고 할 정도의 망나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공군 여의도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때 군목이 성경을 사다가 그에게 주며 도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하게 되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후에 그는 술, 담배를 끊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 받고 집사가 되어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변해서 나사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한 후에 제가 찾아가보니 "잔술이 사발술이 되고 사발술 됫술 되고 됫술이 말술 되고 말술이 성술 되고 성술이 사람을 삼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술이 사람을 삼킨다고 합니다.

제게 4명의 형님이 있었는데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째형님이 술 잡수시다가 돌아가시고, 셋째형님도 역시 술 잡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형수님이 과부가 되고 조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은 사람을 망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지만 대개 음주운전하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남의 차를 들이받아 남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자동차 교육을 받을 때 교관이 "목사님, 차의 앞유리, 뒷유리, 옆유리를 몇 분에 한 번씩 봅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

다. "가끔 봅니다" 고 했더니, 틀렸다며 자꾸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부숴지면 고치고 잃어버리면 새로 사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주의 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이런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 죄의 부분을 부수어 바로 세워주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섯째, 성경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지면 얼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읽으면 불이 붙습니다. 사랑은 분내지 않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성경은 거울입니다.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거울을 보고 치장하는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안하면 게으른 여자이고 남편이 바람납니다. 남편이 바람 나지 않을 만큼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남편 보라고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면서 치장하기에 바쁩니다. 부디 성경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 때묻은 것이 있으면 보혈로 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성경은 금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서 신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이 닿는 대로 다 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난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만졌더니 금으로 변하였고, 기둥, 의자, 그릇을 만졌더니 금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아내도 만졌더니 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그는 탄식하며 금 때문에 망했다고 울어댔습니다. 금이 인생의 행복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금이 변함없고 귀한 가치가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부요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씀으로 부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성경은 책입니다.

책이니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쁜 짓 하는 애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나쁜 책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상하고 도색적인 책을 보면 그런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물들게 되고 마지막에 운명할 때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책 중의 책입니다.

아홉째, 성경은 양식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합니다.

열째, 성경은 신령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인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처음에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한째, 성경은 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맛있어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한 것 같지만 은혜를 받고 말씀의 맛을 알면서 이런 경험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둘째, 성경은 나무입니다.

돌감나무의 가지를 잘라 참 감나무에 접붙이면 돌감나무 가지에 참 감이 열립니다. 돌배나무를 잘라 참 배나무에 붙이면 참 배가 열립니다. 이것이 접목입니다. 우리는 돌감나무이고 돌배나무이지만 참 나무인 성경에 접붙임이 되면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셋째, 성경은 생명입니다.

즉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고 죽었던 부분들이 살아나고 메말라 비틀어졌던 것들

이 새롭게 생명을 얻고 일어납니다.

성경의 힘

첫째, 성경은 영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면 건강해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음식처럼 영혼의 영양력이 풍부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성경은 부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사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흥되고, 세계가 부흥됩니다.

셋째, 성경은 해부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쪼갭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죄악의 뿌리까지 다 뽑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하고 이것을 도려내게 합니다. 의사가 아픈 곳을 메스로 도려 내듯이 성경은 우리의 곪은 부분을 도려냅니다.

넷째, 성경은 중생력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경은 성결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여섯째, 성경은 해방력이 있습니다.

육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상, 미신, 마귀, 죽음, 지옥에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일곱째, 성경은 인도력이 있습니다.

인도적인 정치가가 역사적으로 두 사람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크롬웰과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정치가들은 대부분 권모술수를 쓰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이중 인격, 중상모략,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정치가는 정직하고 남을 헐뜯지 않는 인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성경은 현정력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여자지만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나라가 확장이 되어 영국의 영토는 해지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아프리카 등 영국의 식민지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여자지만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중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역사책입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치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 성경은 상상력이 있습니다.

시, 소설, 미술, 음악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이 그림이나 음악의 훌륭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들이 성경 내용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열째, 성경은 융화력이 있습니다.

동서를 유대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흑인, 황인, 백인을 묶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 과학도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흑백도 없고 황인도 없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백인 교회를 가보니, 예배가 끝나면 서로 끌어안고, 점심 먹으러 가고, 차 태워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 했더니 제가 유학생이라고 헌금을 거두어서 학비를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흑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더니 감정이 풍부한 흑인들이 시커먼 얼굴로 비벼대어 후끈후끈한데 "brother"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여기서 서로 못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한식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화력입니다.

열한째, 성경은 치료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라", "죄 짓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구별되이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는 말씀대로 살면 건강합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건강합니다. 반찬이 많다고 많이 먹고 적어서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먹습니다. 성경대로 분내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앙심 품지 않고 살면, 소화도 잘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제 나이를 안 믿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찡그릴 일이 있어

야 찡그리지 않겠습니까? 집사람을 보면 고맙기만 하고, 누가 섭섭하게 해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당하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먹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열둘째, 성경은 자선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자선 단체가 예수님 이름으로 자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YMCA, YWCA, 적십자사 등 이렇게 자선하는 근본 정신은 다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자선할 마음이 생기게 하고 또 능력이 생깁니다.

열셋째, 성경은 교육력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자체가 교육인 것입니다. 링컨은 초등학교 2년밖에 안 다녔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나에게 단 한 분의 선생님이 있고, 단 한 권의 책이 있다"였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은 새어머니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낸시라는 계모가 링컨을 양육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개념에 계모는 아주 무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의 계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똑같이 사랑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권의 책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링컨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열넷째, 성경은 구원력이 있습니다.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별칭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대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 사상의 근원, 세계 문명의 선도자, 정부와 사회의 모범, 법률의 모형, 역사의 안내, 문학의 장식품, 학술의 친교, 지식의 광채, 영적 생활의 양식, 미신의 해방자, 약자의 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신의 해방자"라는 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군 본부에 군목으로 있을 때, 한번은 전철을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남산 밑 후암동이었습니다. 전철에서 내려 8군단을 지나 걸어오는데, 늦은 가을 길바닥에 사람 얼굴과 손바닥이 그려진 종이를 놓고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려는데 저를 부르기에 가보았습니다. 한번 보고 그냥 가라고 하여서,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상도 봐 주고, 손금도 봐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팔자는 이만하면 괜찮으니 남의 팔자 고치지 말고 당신 팔자나 고치세요." 성경은 미신의 해방자입니다.

성경은 약자의 힘, 악자의 징계, 죄악의 뿌리를 뽑는 기계, 사상의 원동력, 이상적 인물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낙심한 자의 희망, 사망자의 부활, 세상 지식 중 가장 값진 지식을 주는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는 지금도 그 사람이 번역한 문법을 제일 완전한 문법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고행을 하던 중 로마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 조건,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루터는 "백만 권의 서적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한 권이 없다면 죽은 송장과 같은 책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 책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인사들이 보는 성경관은 이렇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바른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산 책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대니얼 웩스터는 "나의 사상과 문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토머스 칼라일은 "성경은 인류의 영혼으로부터 발해지는 가장 진실한 발언이다", 잔 라스킬은 "내 저작의 공적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매일 성경을 읽어주시고 암송하게 한 까닭이다", 페트릭 헨리는 "성경은 오늘까지 인쇄된 모든 서적 전체와 대등하다", 칸트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이익이다", 테니슨은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교육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경의 영향력

성경은 또한 문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감화력을 주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묵시록을 펼쳐 놓은 것이고, 밀턴의 「실락원」은 창세기를 펼쳐 놓은 것이고, 괴테는 아가서에 살을 붙여 작품을 썼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모든 극작은 성경이 소재입니다. 시에 있어서 테니슨, 브라우닝의 시도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바흐의 "수난곡", 헨델의 "메시아", 모차르트의 "레퀴엠", 베토벤의 "장원미사곡" 등도 성경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성화", 라파엘의 "성모 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밀레의 "만종" 등이 성경을 소재로 한 것들입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성당과 대사원의 건축을 통해서 건축술이 대단히 발달하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120년 걸려 지었다고 합니다. 밀라노에도 성당이 있는데 수십년 걸려 지었고, 독일의 쾰른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800년 걸려 지었습니다.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 박물관에 들어가는 복도 천장에 그림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그려 놓았습니다.

영화 가운데도 성경을 소재로 한 세계 명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소련 영화인 "대제의 밀사"를 비롯하여 "벤허", "다윗과 골리앗", "십계", "쿼바디스", "삼손과 데릴라"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십계"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불이 내려와 석판에 십계명을 쓰는 장면 등은 놀랍지 않습니까? "벤허"라는 영화는 한 무신론자가 불신자 친구 월리스에게 반기독교적인 책을 쓰라고 해서 월리스가 성경의 허구성-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쓰려고 여러 해 동안 자료를 모집해서 쓰다 만든 책이 원작입니다. 결국 반기독교적인 책을 쓰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의식에 있어서 결혼식, 대관식, 취임식 등을 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합니다.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능력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케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딤후 3:15-17). 미국이 타락해 가는 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한 그때부터입니다. 케네디가 물론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한국 이민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좋았지만,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큰 과오를 범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국가이며 청교도 정신을 가진 국가인데 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합니까? 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이 적혀 있는데 말입니다. 헌법에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천국 가는 지도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람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몸이 없다면 유령입니다. 정신이 없다면 정신 빠진 사람입니다. 영이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있으면 살았고 영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몸의 양식, 정신의 양식, 혼의 양식이 다릅니다. 나무에는 물을 줘야 합니다. 휘발유를 주면 죽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정치, 경제, 과학은 육신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문학, 철학, 음악, 예술 등은 정신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있어야 기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만족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균형 잡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체력이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절대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건강해집니다. 목사님들이 대개 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성경을 접하여 깨끗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지력이 생깁니다. 링컨이 초등학교 2년밖에 안 다녔지만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 이런 지력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왔습니다. 링컨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쓰던 성경에 새까만 손때가 탔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덕을 얻습니다. 건강도 지식도 좋지만 사람이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다리 하나가 짧아 절룩거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은 다리 하나가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파티에서 남편이 친절하게

의자를 손수 빼주면서 아내에게 앉으라 하였을 때, 덕이 있는 여자는 "여보, 변함없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덕이 없는 여자는 "오늘따라 유난스럽게 구네.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핀잔을 주며 말할 것입니다. 여자는 어디 가나 남편의 체면을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남편이 좀 큰 소리하면 '집에서 큰 소리 못하면 어디서 큰 소리를 낼까' 하면서 받아줘야 합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력이 생깁니다. 영력이 생기므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고, 힘이 나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공자는 일생 동안 3천 명의 제자가 따랐지만, 베드로는 성령 받고 영력이 있어 하룻밤에 3천 명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시켰습니다.

성경은 상고의 대상이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시편을 계속 읽어내려 가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읽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잠언, 허영심이 생기면 전도서, 실패했을 때는 욥기, 부부 애정이 식었을 때는 아가서와 에베소서 5장, 참지 못할 때는 야고보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생활을 원한다면 마태복음 5-6장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톨스토이는, 신구약성경이 다 없어져도 마태복음 5-6장은 남을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지속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 부모에게 효도하기 원하면 룻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잠언 3장과 욥기 8장, 대접을 잘하려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항상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축복이 따릅니다. 제가 먼 데 갔다 올 때 아내에게 아무 것도 안 사주는 것과 반대로 이것저것 사다줄 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을 사주는 날은 그날 반찬 두세 가지가 더 올라옵니다.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쓰다듬고 긁어주면 좋아하고 어디 갔다 왔을 때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한 번 때리고 혼내주면 항상 도망갑니다. 짐승들도 눈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아내에게 사랑받겠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먼저 흠뻑 사랑해 주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주도 처녀가 '서울 총각들은 아내를 아껴 바깥일도 안 시키고 안에서 그저 살림만 하게 하고 남편이 먹여 살린다는데, 내 평생 소원이 서울 총각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서울 남자는 '제주도 여자는 벌어서 남자를 먹여 살린다는데 제주도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 둘은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받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둘 다 굶어 죽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십시오.

환난을 당했을 땐 시편 23, 27, 121편과 로마서 8장 38-39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기 원하면 이사야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전도하길 원하면 사도행전, 복을 받길 원하면 신명기 28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방법

첫째, 항상 읽어야 합니다.

영어하는 사람도 영어를 계속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30년 전에는 텍사스에서 5개월 동안 미국 사람 속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말이 맞든 안 맞든 다 통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다고 미국에 삽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기분입니다. 전화를 받아도 한국어, 설교를 해도 한국어, 그러니 영어를 잊어버립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하면 뻣뻣해집니다. 정경화 씨는 로마 교회의 집사인데 하루 5시간씩 연습을 한답니다. 제가 "당신 아들딸도 음악시킬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음악하느라고 연애도 잘 못하고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음악가는 음악뿐 아니라 성경도 항상 읽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침에 읽든 저녁에 읽든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밥을 규칙적으로 먹듯이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매일 구약 10장, 신약 10장씩 읽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구약 3번, 신약 10번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45년 이상을 하니까 이제야 무슨 말씀이 어디 있는지 희미하게 알 만합니다.

셋째,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뜻을 밝히 풀어 주십니다. 영감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넷째,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책임으로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모든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요즘은 각 교회들마다 QT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실행할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였듯이(약 2:17)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얻는 유익

첫째,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타락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잠언을 보면 벌써 3천 년 전에도 창기가 있습니다. 거리 창녀가 젊은이를 유혹하는데 거기 끌려가는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잠 7:22). 젊은이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소인가 생각하면서 안 가게 될 것입니다. 타락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생명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넷째, 생의 우선 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 6:33)고 했습니다.

다섯째,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섯째, 풍부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의 열매,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일곱째, 기도의 능력을 얻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장로님이 겨울에 잠언 말씀 "어찌하여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고"를 크게 읽고 있는데 마침 도둑놈이 넘어오다가 놀라 도망을 갔답니다. 어떤 도둑은 도둑질하다 들켜 경찰에

쫓겼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이 예배당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이 내일 설교할 것을 연습하느라고 강단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 도둑이 벌벌 기어나와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면서 큰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한 고등학생이 "할머니, 읽지도 못하는 무거운 성경을 왜 그렇게 들고 다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성경을 몰라도 성경은 나를 알아본단다"고 하더랍니다. 아이젠하워는 "내게 이 성경이 없었다면 미국의 대통령직을 8년 동안 감당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전쟁이 아무리 치열할 때라도 꼭 성경 몇 장을 보고 잤다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마 4:4).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웨슬리 목사가 훌륭한 것은 그 뒤에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목사의 가정이었으므로 19명이나 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비롯한 다른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 대학을 보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복받은 가정이 있다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가정일 것입니다. 그 목사의 가정에서 훌륭한 분이 수많이 나왔습니다. 목사, 교수, 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등 ……, 이는 성경을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목적이 밥 세 그릇 먹으려고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에

서도 밥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좀 잘 가르쳐서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만 활동하도록 만들지, 국제적인 인물로 키우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식을 바로 교육하고 국제적인 선량한 사람을 만들려면, 어른들이 먼저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주면 결단코 탈선하지 않고 선량한 사람, 훌륭한 사람, 국제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장성하며, 학교에서는 배워서 지성을 개발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인적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가정에선 육신을 기릅니다. 학교에선 지성을 기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과 더불어 전인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학교 교육은 지성 교육, 출세 교육, 돈버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사람 교육은 잘 못시킵니다.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학교에 마약, 섹스가 난무하고 권총으로 선생님을 위협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인성 교육을 학교가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만이 진정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희랍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의 뜻은 "불러내다", "끄집어내다"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내가 뭘 배우고 싶고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여기 교회에 앉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름 받은 자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 종의 무리들, 사랑의 가정, 새 출애굽, 주의 포도원, 새 인생 조성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 계신 궁전, 진리를 배우는 동산, 안식을 주는 평안의 방, 어둔 밤의 등대, 환난의 도피소, 십자가 군병의 훈련소, 구원의 방주라고도 합니다.

인천에 양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가 늙어서 권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자본은 없고 배

운 건 없으니까 새우젓을 팔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새우젓도 뭐 아무나 팝니까? 곡조를 붙여서 여자들이 새우젓 사러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화가 나서 술만 먹고 집에서 아내를 때립니다. 때리고 나서는 후회를 합니다. '이것 또 실수했구나,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면 번개처럼 아내를 한 방 때렸을 텐데 그냥 주먹만 불끈 쥐고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다 받는구나"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교회는 새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아벨 시대에는 제단이, 광야에서는 장막이, 가나안 정착해서는 성전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0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예배, 성례전, 설교, 교육, 선교, 상담, 친교, 봉사, 심방, 행정. 이것이 교회의 주업무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용재 백낙준 박사님은 1895년 3월 9일 평안북도 정주군 관주면 관삽동에서 태어나 1985년 1월 13일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선천의 신성중학교와 중국 천진 신학원에서 수학하신 후 미국에 건너가 파크대학, 프린스턴 신학교 등에서 신학과 역사학 등을 공부하고, 1925년 예일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논밭을 다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그

러다 보니 자신의 가정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그 사정 얘기를 듣고, 자기가 평양에 데리고 가서 일감 주고 먹여 살리겠다고 그 식구를 다 데리고 가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신성중학교를 나오고, 선교사가 중국 천진으로 보내주어 거기서 신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여 훌륭한 학자요 한국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논밭을 다 팔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성심성의껏 섬겨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종교, 올바른 신앙,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생활 태도를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교회관

성령님에 의해 탄생된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개척했다고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가 개척했다고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사단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

을 감옥에 넣고 핍박을 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교회를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반석이 될 수 있냐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약한 베드로를 들어 쓰시고 그를 반석이라고 하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참으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에는 강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는 참으로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 중 훌륭한 신앙인이 꽤 있는데 그중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바울"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

고 각종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음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빈민촌에 들어가 1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 김활란 박사 역시 어려운 가정에서 그리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활란' 이라는 이름은 세례명 '헬렌' 을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교제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성

"이목구비 사지백체(耳目口鼻 四肢百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와 눈과 입과 코, 이 네 가지 외에도 사람에게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손, 손톱, 발, 발톱, 갈빗대, 오장육부, 세포, 혈관, 신경 등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인체의 신비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관 기관들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이 되어 조화롭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모습과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한 몸을 위해서 그리고 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각 몸의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상합하여 각 분량대로 그 몸 전체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개인 개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재인식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눈의 역할을, 손의 역할을, 귀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체가 서로 상합될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개인은 개체로 존재하지만 이 개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져 한 가지 목적으로 나갈 때, 교회는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마음을 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생명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주역들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자기 존재성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모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기의 올바른 모습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도록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받은 은사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체의 중요성

모든 지체는 중요합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눈이 손을 보고 "너는 보지 못하니 쓸데없다"고, 머리가 발을 보고 "너는 생각을 못하니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은 어떻게 입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눈도 필요합니다. 눈이 있어야 보고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고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발도 중요합니다. 발이 없다면 어떻게 다닙니까?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나지 않게 했다면 뜨거운 여름철

에는 두피가 다 타고 추운 겨울에는 얼어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모자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눈썹이 없다면 땀에 있는 염분이 눈에 들어가 눈이 쓰려서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코의 구멍이 위로 뚫어졌더라면 비가 올 때는 뚜껑을 닫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입이 등에 붙었다면 밥은 어쩌다가 들어가겠지만 국은 먹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인체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믿은 사람도, 연보 잘하는 사람도, 연보 잘 못하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일찍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항상 늦게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점잖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꽃도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으니까 아름답지 단색으로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무지개도 7가지 색이 있으므로 영롱하다는 말을 하지 단색이라면 무미건조합니다.

성경은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잘못 부딪히면 뇌진탕에 걸립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화장실에 가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세상 떠나셨습니다. 내장도 약합니다. 내장이 약하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터지고 찢길까봐 하나님이 갈비뼈 안에 살과 피부로 덮은 것입니다. 눈도 약합니다. 뭐가 가까이 오면 눈꺼풀이 얼마나 신속하게 눈을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혀도 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한 것들이 참 소중합니다. 약한 것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때로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더 필요하고 요긴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십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어도 예쁩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몇 겹을 더 입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노련한 목수는 나무 뿌리 하나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은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더 빨리 몰고 갑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더 약해 보이는 것도 오히려 더 요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쓸모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여러 지체들이 모였지만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중요하고 요긴합니다.

지체의 연결성

모든 지체는 다양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지체가 아프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체간의 연대성과 긴밀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 하나가 썩으면 온몸이 아픕니다. 지체는 중요할 뿐 아니라 연결성이 있으므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

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교회는 기구적인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유기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라고 했는데, 서로 협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는데, 즉 우리 지체가 각각 중요하고 서로 연결성을 가졌으므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서로 돌보도록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체의 통일성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많지만, 이것이 다 하나로 붙어서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완전한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손이 따로 떨어져서 사람이 되겠습니까? 머리가 따로 떨어져서 사람이라고 불리겠습니까? 이것이 다 연합할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통일될 때만 하나의 완전한 개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한 유기체 안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서로 보완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얼마나 잘 조화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참된 조화와 통일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다양성을 조화롭게 하는 기름이요, 수많은 사지백체를 조화 · 통일케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분쟁보다는 평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일그러진 것보다는 온전함을,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움을, 분열보다는 단합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참된 조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요, 받은 은사와 위치에 따라 선한 봉사와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내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사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다르나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 했습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에게 항상 영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생

명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그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건강하고 통일성 있는 지체를 이루면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체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많은 족속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각 지체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다른 지체들과 서로 상합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

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더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나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몸 된 교회를 더욱 받들고, 더욱 열심을 내어 선교, 교육, 봉사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

마태복음 24장 32-44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의 중요성

첫째, 재림은 예언의 중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4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통 예언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림은 성도의 산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도 나고, 사고도 나고, 안 먹으면 죽고, 공기 안 마시고 물 안 마시면 죽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원이 미완성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거룩함같이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거나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상대적이나마 그리스도의 거룩,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산 자가 순식간에 영체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육신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재림은 만물의 대망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롬 8:19)라고 했습니다. 생태계를 보면 서로 잡아먹고 삽니다. 작은 벌레는 잎사귀를 갉아먹고, 새는 벌레를 잡아먹고, 뱀은 새를 잡아먹고, 산돼지는 뱀을 잡아먹고, 산돼지는 더 강한 동물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 현상이 없어

집니다. 악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아이들이 사자, 호랑이를 타고 노는 등 만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물고 찢고 먹고 먹히는 것입니다.

전에 알래스카에 갔을 때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래는 고기떼가 쭈욱 오면 후욱 하고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래 입 속으로 고기떼들이 물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래가 물을 내뿜으면 물만 나오지 고기는 그대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꽃도 열흘이 지나면 떨어지지만 회복이 되면 1년 동안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만물의 대망입니다.

넷째, 재림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역시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여겼지만 공평한 사회는 되지 못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세계를 도와준다는 미국의 백악관을 세 블록 정도 지나가면 거지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가난한 흑인촌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달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대단히 호화스럽게 삽니다. 대통령의 관저보다 더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 안에 골프장도 있고 전용 비행기도 몇 대 있고 사자, 호랑이를 애완으로 키우고 유럽 여러 나라에 집도 있는데 반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합니다.

공산주의는 더욱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공산주의는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본주의를 한다고 이 땅에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로도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

고, 공산주의도 될 수 없고, 이제는 제3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공정한 재판을 해서 악을 제거하고 사단을 가두고 정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즉 공의의 왕국과 진리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어느 신학자가 공산주의를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느 정도 평등은 있지만 자유가 없고,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 자유는 있지만 평등은 없고, 기독교만이 자유와 평등, 사랑이 있다."

다섯째, 재림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인류 역사를 일곱 단계로 나눕니다. 물론 역사가, 과학자, 정치가, 경제가, 군사가들이 달리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곱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무죄시대, 양심시대, 권세시대, 허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시대. 지금은 은혜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천년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젠 은혜시대의 문이 점차 닫혀지고 천년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섯째, 재림시 순교자의 호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 때문에 못다 살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칠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의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밥이 되거나, 불구덩이

에 던져지거나, 새 모이가 되거나, 작두로 죽임을 당하는 등 무참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나라 조선 말기, 일제시대, 6 · 25 때에도 순교자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형님도 33세에 강릉에서 전도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학생 때 전라북도 두함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용훈이라는 분—1년 후배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이 초청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하고 간 1년 후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후 6 · 25 전쟁이 일어나 그 동네의 기독교인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도망간 몇 사람만 살아 남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아이 밴 어머니, 아이들도 다 공산당들이 죽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순교자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나이대로 수십 명의 이름을 써 놓았습니다. 비문에 보면, "임동선 신학생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여 예수를 믿고, 1년 후 믿음 때문에 총알이 아깝다고 대창으로 찔려서 순교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는 이렇게 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합니다. 또는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육의 장막을 벗었다, 의인이 화를 피했다, 제3의 탄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굼벵이도 일어나서 매미가 되고, 논바닥의 땅추벌레도 잠자리가 되고, 누에도 나방이 되고, 알도 병아리가 되고, 밀알도 썩으면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 지혜, 공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초가 닳아 없어질 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체만 변했지 원소는 공간에 그대로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므로 소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나겠고, 살아 있는 자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재림시 마귀가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되어야 마귀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갈 뿐이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딴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무슨 다른 일을 꾸미든지 합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히 마귀가 멸합니다.

여덟째, 재림은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때야 올바른 심판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제대로 갈라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중에는 자신들을 반대하면 탄광이나 강제수용소나 감옥에 보냅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정확하고도 공의롭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약속

첫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천사가 약속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고 했습니다.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이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넷째, 사도가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6)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바울 모두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람이라 그가 한 말을 믿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쟁이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통법규에서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데 늦는 경우, 시속 35마일로 가야 하는데 50마일로 갑니다. 그러면 어쩌다 뒷자리에 앉아 있던 손자가 "어어" 하고 제게 말을 합니다. 그때 시치미를 떼고 35마일로 달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그냥 싸악 지나고는 얼른 뒤를 돌아봅니다. 경찰이 오나 안 오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모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재림의 시기

이성봉 목사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된 신자들은 "주 예수의 강림이 오시나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준비 못한 사람은 "주 예수의 강림이 오시나니 큰일났구나"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공부 잘하고 실력이 충분하면 시험칠 날이 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도살장에 가는 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된 성도들은 "주여, 어서 오세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요새 흑인 등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인 등쌀에도 힘듭니다.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매일 생깁니다. 주여, 어서 오세요" 하지만, 준비를 못한 사람은 "주여, 좀더 있다 오세요. 준비된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첫째,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부터 몇 십년 후에 오신다, 몇 백년 후에 오신다 등 수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1992년 10월 10일 또는 10월 28일에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고 했습니다. 천사는 차치하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무슨 거리가 있겠습니까?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전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할 이야기는 하지만 하지 않을 이야기는 안합니다. 아들이지만 할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알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신비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신비를 다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은하수에는 수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수가 또 수백 개가 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둘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게 하십니다.

만약 남녀가 서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결혼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 며느리가 여름철에 밥상을 시아버지께 올리려다가 그만 대청마루에서 삐끗하여 전(煎)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누가 볼새라 얼른 집어 툭툭 털고 다시 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시아버지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아버님, 천천히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치미를 떼면서 "아가, 어떤 반찬이 맛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보지 않고 드시는 게 맛있어요"라면서 그냥 부엌으로 도망갔습니다.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봐도 못 본 체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 대로 따져 보십시오. 멀어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모르게 예수님을 재림시키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간순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림의 시기를 사람들에게 다 알린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질서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이 없이 재림만 기다리는, 오히려 불안정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언제 죽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라고 자기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나의 죽는 때를 안다면 우리에게는 발전 없는 생활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지도 않고 마냥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지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확히 언제 죽는지 말씀하지 않

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당신을 믿기 원하시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는 시기를 모름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오신다고 선포하신다면, 사람들은 실컷 죄짓다가 한 달 전에 준비하거나 일주일 전에 준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즉석으로 구원받은 강도를 예로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개는 아무리 몸집이 작아도 사람보다 잘 달립니다. 사람보다 굉장히 잘 듣고, 밤눈도 밝고, 이빨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뼈를 오도독 씹어도 창자가 터지지도 않고 변에 뼈다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개의 판단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오래 전, 서울 남산 밑 후암동에서 살았을 때 개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지나가는 수많은 차 중에서도 제 차소리를 알고 짖어대는 것입니다. 저희집 아이들도 짖는 소리에 제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또 개는 발자국소리도 주인집 발자국인지, 도둑놈 발자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개는 주인과 한 번 사귀면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도 그냥 돌아서거나 배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 개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죽어 장례식을 치르고 미망인과 그 가족, 손님들이 다 가버려도, 개는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12년간 거기 머물러 있어

서 거기에 개 무덤도 해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개는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주인의 성과 생일도 모릅니다. 주인이 언제 보신탕을 끓여먹을지도 모릅니다. 개가 영특하고 아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개에게 맞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에게도 알아야 할 것, 모르는 것이 나은 것 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 24:32-33)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연을 보면 때를 알지 않습니까? 새싹이 나면 봄임을 알고, 잎사귀가 푸르면 여름, 단풍이 들면 가을, 다 떨어지면 겨울이 되는 것을 압니다. 대동강에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 것을 압니다. 이처럼 세상의 징조를 보고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첫째, 거짓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자신이 예수라면서 15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다. 점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

고 있습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거짓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이 여기저기 있다, 흉년이 든다, 온역이 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랑이 식어지며 악이 성해진다, 일월성신이 어두워진다, 지식이 발달된다, 교통이 빈번해진다,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며 예수 이름이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재림의 형편

재림시에는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노동자 목수의 아들로 오시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천사를 거느리고 불꽃 중에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불꽃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돼지가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 옆에 새빨간 연시가 있어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 주둥이가 까지도록 땅을 팠다고

합니다. 연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눈은 공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시간의 세계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성의 세계만 아니라 직관의 세계도 보고, 물질의 세계만 보지 말고 생명의 세계도 봐야 하고, 과학의 세계만 보지 말고 형이상학적인 하늘 나라를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목적

첫째,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에 앞서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순교하기까지 구원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때 영원한 벌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정의를 수립하러 오십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평등을 주장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결단코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고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마귀는 이미 그 세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사단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넷째, 신부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성도들의 신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 된 우리들을 영접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성도의 준비

이제 주님께서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먼저, 처녀로 등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과거적 해석,

현재적 해석, 미래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과거적 해석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현재적 해석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미래적 해석은 예언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깨끗한 몸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등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주를 믿고 사도신경을 외우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바울처럼 깊은 충만은 받지 못했지만 주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구한말 왕이 가마를 타고 앞서거라 뒤서거라 하면서 함흥을 지나가는 중 정자가 있어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서 소년 하나가 툇마루에 앉아 글을 읽는데 어쩌면 그렇게 목청이 좋고 글을 잘 읽는지 오라고 했습니다. 왕은 누구네 집 몇째 아들, 몇 살인지를 물어 본 후,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다음에 과거에 장원급제해서 이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 주고 다시 길을 갔습니다. 소년은 즉시,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금실로 장갑 하나를 떠달라고 하더니, 그 장갑을 손에 끼고는 어머니 아버지도 못 만지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귀한 임금님이 자기 손을 만졌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손을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 임금인데 우리는 앉는 자리, 눕는 자리를 가려서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시 1:1)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인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흰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속으로 '흰 옷감으로 저고리를 몇 개 해서 입어야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흰옷은 성도의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하루, 한 달, 일 년을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설교를 듣고 실천하며 봉사, 헌금, 충성하고 말조심하며 전도, 효도, 구제하고, 이것으로써 흰옷을 짜서 입으라는 말입니다.

셋째,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신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 7:9)라고 말씀합니다. 종려가지는 열대지방의 상록수입니다. 비가 와도 푸르고 십 년 동안 비가 안 와도 푸릅니다. 이것은 불변의 신앙, 변치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잘 믿고, 미국에 있을 때도 잘 믿고, 장사가 잘

돼도 잘 믿고, 잘 안 되어도 잘 믿고, 강도를 만나도 잘 믿고, 불타도 잘 믿고, 결혼해도 잘 믿고, 애를 낳아도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잘 믿다가 제대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관생 때는 잘 믿다가 장교가 되어서는 잘 안 믿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잘 믿다가 부자가 되니까 안 믿고, 부자일 때는 잘 믿다가 다 망하고 나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녀 때는 잘 믿다 결혼하니까 안 믿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변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넷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36)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 모든 악한 것과 유혹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면 비록 잠을 자는 순간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사자와 같은 심판의 주로 만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 예수로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천국과 지옥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세의 존재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상, 과학, 인심, 강산도 변합니다. 제 고향은 인천 앞바다인데 제방 쌓고 찻길 뚫느라고 그전에 있던 큰 산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보편 타당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정치상의 진리, 과학적 진리, 도덕상 진리, 철학상 진리, 종교상 진리 등이 다 표현됩니다.

정치상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유, 평등, 인권입니다. 과학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이학상 진리입니다. 도덕상 진리는 삼강오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친구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상 진리는 진선미입니다. 종교상 진리는 금세와 내세입니다.

지구에는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교리는 다를지언정 금세와 내세의 교리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곳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가려면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갑니다. 걷든지, 뛰어서는 못 갑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입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복중일생, 현세일생, 내세일생이 있습니다. 복중일생은 이 세상에 오기 위한 준비, 내세일생은 저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군주들은 힘밖에 없고, 음악가는 음계, 미술가는 색과 선, 철학자는 가치의 세계,

과학자는 자연법칙만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종교가는 금세와 내세가 있다고 합니다. 금세보다 내세가 더 엄숙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신론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강연회 또는 부흥사경회를 하듯 말입니다. 거기에 세 사람의 강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가 나오더니 "나는 의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몸을 해부해 보았지만, 교인들이 말하는 영혼을 못 찾았습니다" 하니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나는 천문학자인데 밤낮 수십 년 동안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천당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더니 또 박수소리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와서 "나는 문학가인데 2만 권의 책을 봐도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못 발견했습니다"라고 말하자 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한 할머니가 세 명의 강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의사에게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아내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물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랑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의사는 얼굴을 볼 때 얼굴에 있는 것 같고, 입맞출 때 입에 있는 것 같고, 손을 만질 때 손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붙었는지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자리로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천문학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있으니 나무가 흔들리지요." "바람이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말해보

세요." 천문학자가 어떻게 바람의 형체를 말할 수 있냐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당신 역시 자리에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가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망신당할까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2만 권이나 보았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신구약성경은 몇 번 봤습니까?"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권위가 각각 다른 줄 압니다. 의학을 하면 의학박사가 되고, 농학을 하면 농학박사가 되고, 정치학을 하면 정치학박사가 되고, 문학을 하면 문학박사가 되듯, 당신이 문학박사에 불과하지 신학에 대해, 성경에 대해 몇 번을 봤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까? 일생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수백번 봤다면 모르지만 성경을 두세 번 보고 신이 없다, 천국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본인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생활이 변화되며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할머니께 보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옥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 경찰, 경관, 재판소, 감옥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그런 말을 잘합니다. 도둑이 그것 때문에 자기 장사를 못하니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변함없는

존재요 사실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가는데 세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거짓말을 하니까 다른 한 아이가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담뱃대로 딱 때리면서 "너, 지옥 봤어?" 하니 이 아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서면서 "그 양반, 그렇게 하니 지옥 가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따라갔지만 아이는 벌써 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가던 길을 가는데, 아이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있어도 "그 양반, 그렇게 하니 지옥 가겠네" 하고, 밥 먹는데도,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하니 지옥 가겠네"가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깨도 그 생각, 꿈에도 그 생각에 잠겨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지옥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친절히 창조, 타락, 예수, 구속,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지옥, 천국을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믿다가 혹 천국이 없으면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의 필요성

첫째, 이 세상으로는 공의의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소외를 당하고 감옥에 가며 죽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세례 요한, 스데반, 주님이 그랬고, 안중근, 유관순 등이 그랬습니다.

감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과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의 만족이 없습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면 저도 권총으로 돈 털어서 가족들을 잘먹이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이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목사도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생활이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 신학교 강의, 심방, 성경공부 인도, 회의, 부흥회, 또 결혼 주례까지 해야 하니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고 만다면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엄숙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공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이 세상에 공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공의가 있는 것입니까?

둘째, 이 세상으로는 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일본에 원자탄이 떨어지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길 원합니다.

두세 살 된 아이도 피가 나면 죽을까봐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

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래 살려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야단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제 책상에 약병이 몇 개 있습니다. 이처럼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가 있는 것은 냄새가 있는 것이고, 눈이 있는 것은 물체가 있는 것이고, 입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오래 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영적 실존들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 나라에 가서 그 광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 바울도 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47년 여름, 강원도 진부성결교회에서 이성봉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나서 뒷정리를 한 후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요를 깔고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였습니다. 혹시 주위에 사람이 있나 하고 찾으려 하는데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것이 나타나 제게 무언가를 보여 주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스웨덴과 호주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을 갔는데 끔찍해서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문을 여니 부둣가에 많은 남녀가 벗은 채로 우글우글 있는데 두 눈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눈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문을 여니 손이 다 잘린 사

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문을 여니 배꼽을 중심으로 창자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벌떡 깨었습니다. 물독에 빠진 것처럼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곧장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제게 이것을 보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를 믿되 똑똑히 믿어라. 신학을 하고 전도를 하려면 똑똑히 믿어라." 저는 "주여, 저는 직간접으로 이런 죄를 지은 까닭에 제가 그곳에 갈 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리기를 "주 예수의 붉은 피로 네 죄를 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이젠 어른들에겐 전도 안합니다. 어른은 직간접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순진한 어린아이한테 전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누구든지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듯 아픈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해라."

죄 범한 한 손을 잘라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을 깨달았습니다(마 18:8).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본 이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신앙의 전환점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 보았더라면 그동안 적당하게 전도하고, 적당하게 목사 생활하고, 적당하게 죄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육과 더불어 싸웁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의 구분

지옥에는 음부(陰府), 무저갱, 지옥이 있습니다. 음부는 "하데스(hades)"라고도 하는데 죽은 자의 거처를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의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거하는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스올"을 번역한 것입니다(창 37:35;삼하 12:23;사 14:9, 26:14, 38:10, 57:9;암 9:2;시 31:17, 86:13, 88:11, 94:17, 143:3;애 3:6). 이곳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에 앞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無底坑)은 영어로 "abyss"라고 하는데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을 주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곳은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음부와 혼동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눅 8:31;계 9:1, 2, 11, 11:7, 17:8, 20:1-3;롬 10:7).

지옥은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되되 마지막 심판시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영들이 영원히 머물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과 반대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지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좀도둑, 강도, 사상범 가두는 곳이 따로 있듯이 죄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용어로 쓰여졌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의 광경

단테가 쓴 지옥의 광경이나 철학자 플라톤이 쓴 지옥의 광경을 보면 실로 처참한 곳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불구덩이입니다. 삼키는 불, 풀무불, 물이 없는 곳, 영원히 불타는 곳, 회개할 수 없는 곳, 영벌의 곳, 자살도 할 수 없는 곳, 영원히 고통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지옥입니다. 플라톤이 쓴 지옥 광경을 보면 칠계를 범한 자, 불의한 자, 낙태한 자, 살인한 자, 배반한 자, 의인을 죽인 자, 거짓말한 자, 과부와 고아를 무시한 자, 배교한 자, 우상을 숭배한 자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신론자, 타락한 전도자, 세례 교인 중에서도 배교한 자, 신유와 권능을 베푼 자 중에서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자 등은 다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마 7:23). 주를 위해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것으로 장사하는 자가 많습니다. 부흥회해서 돈을 나누자는 사람, 사례비를 먼저 주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하는 사람, 안수기도해서 돈버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천국에 갈지 의심스럽습니다.

천국의 종류

네 가지의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 천국, 교회 천국, 지상 천국, 영혼 천국.

첫째, 마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네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찬송가 495장 2절에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번은 이성봉 목사님이 부산의 동래 온천에 오셔서 제 아내에게 양복 한 벌을 건네 주셨습니다. 아내가 그 양복을 가지고 와서는 입어보라고 하여 입었더니 제 허리의 세 배쯤 되는 큰 양복이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그렇게 뚱뚱하셨습니다. 얼른 보면 일본 씨름선수 같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6 · 25 때 목포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인민군에게 잡혀갔습니다.

서장이 "착취 많이 해먹었구나. 더러운 돼지같이"라고 빈정대며 말하였습니다. "허허허허. 나는 착취 안했시다." "착취를 안했으면 배가 왜 그렇게 나왔어?" "나도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말랐던지 별명이 깡다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 천국을 이루고 나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쪘습네다." "당신 천국 봤어?" "예, 본점은 못 봤지만 지점은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고 했는데 마음의 천국으로 살쪘습네다."

이 말을 듣고는 막 웃더니 "예수쟁이 말 잘하네" 하면서 눈동자가 사람의 눈동자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 인민군이 여기 내려온 것을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채찍질을 하시는데, 대한민

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잘못하니까 불방망이로 때리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까지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시기, 질투, 교만, 불효, 음란, 거짓, 모략을 다 버리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으로 마음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로역정」이란 책을 보면 "간난산아 높다만은 이리 가세 이리 가세 왼편 길로 가느냐 멸망함을 면할쏘냐 천신만고한 후에 무지복락 누린단다 평안 방이 있단 말을 들은 지가 오래더니 죄인 몸이 여기 와서 평안함을 누리도다 미궁이야 높고 높다 주의 은혜 이 아닌가 걱정 근심 다 버리니 작은 천국 여기일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국입니다.

셋째, 지상 천국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불의, 죄, 사단을 제거하시면, 사막에서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영혼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

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계 21:3-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광경

첫째, 보석성, 진주문, 황금길, 생명강, 생명나무가 있고, 시간 제한이 없고, 의복이 필요 없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계 21:11),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췸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계 21:23-26)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놀라고, 또 한 번은 꼭 올 줄로 알았는데 오지 않은 사람 때문에 놀라고, 나머지 한 번은 천국에 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와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과 성격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왔지만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사랑으로 지배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통치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로마서 13장 11-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많은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과 좀 다른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생활과 군인생활인데, 이 생활들은 개인적인 생활과는 달리 공적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아울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와는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삶에 만족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개 온전치 못한 생활을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교리, 실천 등 여러 가지를 잘 몰라서 신앙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것들을 안다 해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는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 미국에서 영주하거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 세 가지 시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인으로서 실제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

신앙생활에 제일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시 118:24). 학교에서 모범생은 무단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모범사원은 회사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가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 신자는 주일에 결코 교회에 무단으로 결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킵니다.

옛날에 서당 훈장이 아이 셋을 놓고 가르치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훈장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장님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막걸리를 한 사발씩 사 가지고 오기로 약속하고 모두 모였습니다. 훈장님은 기분이 너무 좋아 더운 날 막걸리를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막걸리에서 쌀뜨물 냄새가 나고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세 아이들이 모두 가난해서 막걸리 대신 쌀뜨물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결같이 나 한 명쯤이야 이렇게 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자 한 명이 자주 빠져 집으로 심방을 갔습니다. 그때 이 신자는 옷을 다림질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얼른 다림질하던 것을 한쪽으로 밀쳐 놓고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그 신자가 쓰고 있던 숯을 몇 개 들어서 가장자리로 놓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상한 행동을 본 이 신자는 속으로 '왜 목사님이 숯을 가지고 장난만 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자는 목사님의 행동에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던 일을 다시 하려고 인두를 숯불에 꽂으려고 보았더니 숯불이 다 식어버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신자는 목사님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리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자주 빠지니까 이 숯불처럼 나의 영혼이 죽고 교회도 약해

져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시 이 신자는 마음을 고쳐 먹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강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문을 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결합하여 봉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어둡고 더러운 생각이 깨끗하여지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하나로 묶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외적인 축복까지 받습니다. 영혼의 양식과 아울러 육신의 양식도 얻고, 희락과 안식의 축복, 평안과 행복, 기쁨, 건강과 사업의 축복 등 셀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와 이웃간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 싸우고 미워하다가도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움의 회복입니다.

제가 31년 전, 텍사스에서 반 년간 공부하면서 미국 침례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캐런이라는 60세 가까운 미망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일주일 동안 매우 성실하게 지내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주일 생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라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토

요일은 자기 집을 위해서 빨래와 청소를 하고 마켓을 갑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삽니다. 도서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후에 책들을 정리해 놓고, 외국인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데리고 와서 성경공부와 아울러 예배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는 간단하게 점심을 먹이고 학교나 시청, 고승지를 안내하고, 저녁에 집에 데려가 간단히 또 먹이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집에서 다과를 대접하고 학생들을 보내 줍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민 교회 신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평일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토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과 놀러도 가고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덜 자고, 입지도 않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도 내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버는데 몰두하여 일만 하다가 말없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장소는 바로 자기 집 목욕탕이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기 위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952년 김필례라는 아주 신앙 좋은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과연 누가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줄 것인가를 장관들이 모여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필례라는 교장

선생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미국에 있는 컬럼비아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미국 대통령이 바로 컬럼비아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아무래도 이 대학 졸업생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어느 편이 더 소중하냐를 놓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일제시대 김해 산골짜기에 이현영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때는 고아원도 없었으므로 동네 부잣집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어린이학교를 나가 성경과 찬송을 배우게 되었고, 점점 성장하여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20살이 다 되어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워낙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상해로 건너가서 한 장로님 집에 머슴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양심적이고,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는 청년이 맘에 쏙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로님은 영국에서 대학 졸업반이었던 인물 좋은 큰딸을 불러다가 그 머슴 청년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인지, 예쁜 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딸은 남편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모두 가르쳐 주어 전문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결국은 전에 떨어졌던 그 신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 합격하였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 여러 나라 말(한국어, 불어, 중국어, 일어, 희랍어, 히브리어, 라틴어)을 하는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은 성결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계셨었습니다. 이분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목사와 대학교수가 나오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머슴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주일을 잘 지켰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의 출세와 훌륭하게 됨을 바라는 모든 분들이여, 물질 유산은 당대밖에 못 가고 정신 유산은 삼대밖에 못 가지만 신앙 유산은 천년이 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땅에서 물질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모두 형통하는(요삼 1:2)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충청도 미원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밖에서 거적을 깔고 성경공부를 하며 설교를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들어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 아이는 문둥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문둥이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규칙 생활을 하기 싫어 담을 넘어 서울로 도망 갔습니다. 처

음에는 실컷 얻어먹고 여름에 소나무 밑에서 자는 게 참 편했는데, 겨울이 되어 기거할 때가 마땅치 않던 중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 다리 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문둥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좁은 것같고 규칙적이어서 힘이 들 것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건한 훈련과 연습 속에서 지금의 삶과 내세의 확실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딤전 4:8).

변호사인 저의 막내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수련회를 갔다 와서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아버지, 제가 전에는 목사 아들인 것을 원망했어요. 제 친구들은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자기 아버지와 낚시도 가고 운동도 같이 가는데, 아버지는 그 날이 더 바빠서 한번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친구들은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모든 죄에 코가 꿰어 끌려 다니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친구 중에는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께 감사해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히 13:15)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신령한 맘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애독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지침서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길잡이요 등(시 119:105)입니다. 따라서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읽되 묵상과 기도로 읽어 거룩하여지는(딤전 4:5)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우리는 흔히 기도를 신령한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신령한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에서 좀더 세분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 연결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응답하는 것, 서약하는 것, 책임지는 것, 평안 얻는 것, 제사드리는 것, 양식 얻는 것, 부요하게 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본을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능력이 많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빌 2:6-7).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 광야에서 40일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흘리실 정도로 기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를 한 것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직분자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시킬까봐 남의 등에 숨어 있을 정도입니다. 경상북도 예천에서 김윤식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어떤 분이 수요일 예배 때에 기도하라고 말하면, "목사님, 저는 예, 기도 잘 못해서 쇠고기 두 근 사 드릴테니까 기도시키지 마이소"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쇠고기를 여러 번 얻어먹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불편한 것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문학적이고 논리적, 수사학적으로, 웅변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키면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거룩하고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낮고 낮은 천한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시되……"라고 멋있고 거룩해 보이는 말만 하다가 끝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약 내게 망치가 필요하다면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빌려오면 됩니다. 만약 빌리러 가서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충실한 이웃 아저씨, 망치 좀 빌려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빌려주는 사람이 웃긴다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 대구 서문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 가운

데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자유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늦잠자다가 제가 새벽기도를 늦었어요. 오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인사를 안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사하러 갈게요. 오후 3시요? 네,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기관총을 쏘듯 달달달 말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간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바로 찬양과 기도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시편을 큰소리로 마음과 정성으로 읽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설교 경청과 실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가운데 또 해야 할 일은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은 교회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는데, 개신교는 성령의 절대권위를 주장합니다. 가톨릭은 신부에게만 제사권이 있다고 하지만, 개신교는 만인에게 제사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2:9)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톨릭은 의식 중심이고, 개신교는 설교 중심입니다. 성

당에서는 향불을 피우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반이 찬양이고 절반이 설교입니다. 가톨릭은 행위를 주장하지만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을 주장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다고 합니다. 너무 황송해서 어떻게 직접 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려면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직접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행을 가는 데 있어 비행기 출발 2-3시간 전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가려고 해도 3시간 전에는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을 쌓는 데 있어서도 미리 조바심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한국 가는 것만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늦게 오니까, 한번은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예배 시간 정각에 안에서 빗장을 걸어놓고는 "천국 급행열차 출발"이라고 써 붙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리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묵상과 찬양으로 말씀 듣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들고 목사님과 눈을 맞추며 경청해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주목해서 정신 통일을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도 "주목" 하고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군인들은 그 상관을 향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대화할 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딴 곳을 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이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누구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초점을 맞추어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고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는 급할 때 많이 먹은 다음 꿀꺽 끄집어내어 다시 씹어서 넘기니까 젖을 많이 내고 힘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새는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창자도 곧은 창자를 가지고 있어 미꾸라지를 먹으면 미끄러워 창자에 쏙 빠집니다.

신자 가운데도 황새 같은 신자가 있고 소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소 같은 신자는 듣고 자꾸 되새깁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며 차 타고 가면서도, 집에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재삼 되새기며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황새 같은 신자는 말씀을 한 번 듣고 '옳은 말씀이지' 하며 그때뿐이고,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말씀을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로 설교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성도는 그 설교를 안 믿는 사람에게 생활로 설교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

다. 성경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요 12:11)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를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많이 있어야 설교를 들은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봉사

봉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순종의 표시, 부름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적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봉사 교육을 받은 사람, 영적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봉사를 하면 오히려 오는 사람을 쫓는 경우가 되곤 합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의 유명한 분의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몇 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아 이상해서 왜 안 나오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이유인즉, 몇 주 전에 제게 그 사모님이 차가 없어 집까지 태워다 줄 사람을 하나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어느 청년에게 그 사모님을 집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분을 모셔다 드리면서 한마디 던진 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 사모님에게 버스를 탈 줄 모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 사모님은 차를 빌려 타서 죄송한 터에 이런 말

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봉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만 해도 한국 사람이 이 미국에 별로 없고 귀했을 때, 가끔 주일 아침에 LA 비행장에서 전화가 걸려 옵니다. "목사님, 나 한국에서 온 누구인데요, 여기 아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동양선교교회 목사님께 전화하면 목사님이 비행장에 오셔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데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을 불러 제 대신 갔다 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부탁을 받은 분이 "어느 비행기입니까?" 라고만 물어보면 저는 그분을 보내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이며, 몇 살 정도 된 사람이며, 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등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그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봉사는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떤 것이든 빈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얼굴은 미소와 친절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단정치 못하거나 화 나 있고 얼굴이 찡그려 있다면 누구나 싫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언행을 조심하고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봉사란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기에 남들보다 시간을 더 잘 지키고 먼저 교회에 와야 합니다.

또한 잡담을 금하고 예배 후 적극적으로 더 봉사에 힘쓰며 특히 새신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새

신자 눈에 봉사자들의 인상이 좋지 않으면 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새신자이기에 새것을 보기 원하고 좀 더 무언가 기존의 것보다 다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사자 명찰 부착과 아울러 친절한 안내, 예배 분위기를 아름답게 조성해야 합니다.

봉사자는 그 날에 교회의 첫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든 처음으로 가서 가르칠 때 학생들 눈에 비치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녀가 처음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이 나쁘면 그 다음에 만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도 주문 받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면 다음에 그 식당에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간디가 영국에서 법과대학을 다닐 때 주일 아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안내하는 남자가 간디가 오는 것을 보고 주보를 주면서 "당신은 당신과 색깔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간디는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다면 힌두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 봉사자가 간디를 환영하였다면 혹 간디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변화받았다면 인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도 새롭게 변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디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풀러신학교를 다닐 때 상담학을 가르치는 백발의 나이 많으신 사다드 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시에

세 번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7시 30분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분이 벌써 7시에 교회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분을 만나 언제 일어나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늦잠을 자거나 시계가 고장나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거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늦으면 하나님 앞에 황송해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앞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 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임감이 철저하신 이분은 분명 봉사의 사람이셨습니다.

헌금

신앙생활에서 헌금을 내는 일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를 들자면, 십일조, 주일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십일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을 주신 것 중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아홉 개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농사를 하여 쌀 열 가마니를 남겼다면 한 가마니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번 것을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득이 적을 때는 아

주 자신있게 십일조를 하다가도 액수가 커지면 떨면서 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인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것도 십분의 일만 드리자고 하는데 말입니다. 소득이 많을 때 걱정이 되어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는 십일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앞서, 더 많은 수입이 내 수중에 들어와 십분의 일보다는 내가 갖는 수입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전보다 더 많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인천에 구두 수선공인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십일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잘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필수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반항하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 세금을 내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면 따짐이 없이 자동적으로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인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드리는 것은 필수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영혼, 몸, 금과 은, 모든 것

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일조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외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우물물은 퍼낼수록 새 물이 납니다. 그냥 두면 이끼가 끼게 마련입니다. 어떤 부자가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귀찮아서 대문을 막고 더 이상 사람들이 물을 긷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우물에 이끼가 생겨 우물물이 썩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 계속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많은 축복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편, 십일조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친 십일조는 레위 자손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12지

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농사와 장사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오로지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각 십의 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의 그것으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십일조로 목사님, 전도사님,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사무원들에게 다 사례하고, 또 선교, 봉사, 교육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에게 주고, 교회 각종 행사를 위해 씁니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성되고 깨끗한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꼭 물질적인 축복이 아닐지라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 문제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누군가가 위로의 기쁨을 받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샘이 나와 다

른 사람을 살리면 의인이요, 그렇지 않고 입에서 독을 뿜어내면 악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입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의인의 입을 가져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를 끼치는 말이 있고, 덕을 끼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툼과 갈등의 이유를 알아보면, 거의 다 말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큰 화근을 일으키어 한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번져나가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습니다.

예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란하게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약 3:6). 혀는 지체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이에 달려 있습니다. 즉 혀는 화를 일으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화가 있습니다. 필화, 색화, 설화입니다. 필화는 글을 잘못 써서 일어나는 화를 말하고, 색화는 이성을 잘못 만나서 오는 화입니다. 그리고 설화는 입술을 잘못 놀려서 오는 화입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혀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특히 남의 말이나 이간시키는 말, 불평,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덕이 되는 위로와 칭찬, 격려, 건설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

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남의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경우에는 듣고 옮기지 마시고, 나의 선에서 그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은 작아지고 나쁜 말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성

충성이란 자기의 맡은 바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고 말씀합니다. 과연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두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아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뭇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마 25:14-30)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고,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각 열심히 일해서 그 배인 4달란트와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와 각 종들의 한 일을 들었습니다. 배를 남긴 두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큰 일도 맡긴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게으르고 충성치 못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학자가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인 영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폭탄이 여기저기 떨어지곤 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폭탄을 이리저리 잘 피하여 안전하게 그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이에 고마운 그 학자는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그 영국 택시 운전사는 자기가 받을 만큼의 요금만 받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주는 것이 자기의 임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극구 더 주는 돈을 사양하였다고 합니다. 그 택시 운전사는 자기의 임무를 충성되게 했습니다.

한국의 오산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졸업반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머슴살이를 했는데, 주인의 요강을 잘 닦아서 지금 교사가 되었다." 이 선생님은 자기가 머슴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

었기에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 자기의 할 바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를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켜 지금의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평양 어느 선교사의 집에 박 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가 박 서방의 마음을 떠 보려고 추운 겨울 박 서방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바깥에 있는 장작을 뒤뜰 장독대 옆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서방은 그 선교사의 말대로 장작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장작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몇 번이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박 서방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선교사는 박 서방을 좋게 보고 공부를 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작은 것 하나가 큰일을 이루는 데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내일은 모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유명한 김장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님은 영어를 무척 잘하시기 때문에 한국 역대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고, 미국의 정치가가 오거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시면 통역을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침례교회 부회장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처럼 세계적인 훌륭한 분이 된 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수원중학교를 다닐 때 6 · 25 전쟁 중이라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칼파워라는 미국 사람을 알게 되어 그 사람 밑에서 잡일을 해주었습니다. 그

의 빨래뿐만 아니라 신발도 닦아주는 작은 일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 미국인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김목사님을 책임지고 공부시켜 한국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편지를 보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였고, 미국 여자와 결혼해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임병택 목사님은 제가 공군에 있을 때 10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저에게 매우 잘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있어 갔더니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성스러운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7년 동안 행정목사로 있도록 권유했고 그의 자녀들까지 미국에 오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성하여 좋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 한다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등을 생각해 보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견했

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곧 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지금 곧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고 예비된 축복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전도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 친지, 이웃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최대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는 세계 일주 비행기표를 사주는 것보다도, 또 집 한 채를 사주는 것보다도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누가 제게 평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공부도 했고, 믿는 사람과 결혼했고, 저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맥아더 장군이 세상을 떠날 때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를 한국의 은인이라고 하여 중앙청 광장에 모여 추도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 부탁을 받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장군, 법관, 외국 사절 등의 중요 인물들 앞에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돈이나 가축, 물건을 주고 여자를 삽니다. 어떤 부자는 여자를 60명을 두어 자녀만 해도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생전 여자를 데려오지도 못해 장가를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부자는 자식이 모두 합하여 1남 1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정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인류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장충동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술과 여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어 이전의 행동들을 끊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후 장로님은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에 알던 사람들은 이분의 변화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고 뭔가가 있나보다 하여 저절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변화된 삶이 많은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결산은 투자의 결과, 활동의 결과, 상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루의 결산은 저녁에 합니다. 한 달의 결산은 월말에, 일년의 결산은 연말에 합니다. 또 일생의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지 계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전도에 힘쓰고 승리한 사람에게 생

명의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야겠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읽고 적용하며, 기도에 힘쓰고, 설교를 듣고 곧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와 헌금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며 특히 언어생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건의 훈련으로 삼아 노력하고 행한다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실제 생활이 이러하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급속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